



< 녹 취 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최차연		
면담자	정지선	면담지원자	송미정
면담일시	2025. 07. 10.	면담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2 휴먼시아 1단지 115동 1501호
녹취문 작성자	정지선	회차	1회차

1. 학익동에서 정착했던 시기와 계기 (00:00:00~00:01:41)

구술자: 보니까는 내 29살에 올라왔어. 지금 87이거든.

면담자: 지금 87이세요?

구술자: 어. 호적으로는 41년생인데.

면담자: 41년생.

구술자: 늦게 호적 해가지고. 근데 그때 올라올 때는(때는) 오두막 살이 집이고

면담자: 어디가요?

구술자: 학익동 거기가.

면담자: 처음에 거기로 오셨었어요?

구술자: 맨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닭집을 우구로(작은 크기로 우후죽순으로) 지어 가지고 세놓고 하더라고. 집이 형편이 없었어요. 비 올 때 나가면 막 찼벽거리고 말이 아니지. 요새 개장만도(개집 만큼도) 못할 정도로 살았어요. 뭐 발전이 안 되니까. 오새는(요새는, 오늘날은) 거기가 많이 됐나 봐요.

면담자: 네. 그럼 29살이면 60년도에 올라오셨네요?

구술자: 우리가 60 몇 년도에 올라왔을 거야? 내가 29살에 올라왔으니까.

면담자: 그러니까요. 60년도¹⁾에.

구술자: 엄청 고생했어.

면담자: 고향은 어디셨어요?

구술자: 경북 안동. 우리 오빠 딸[배석한 최기숙씨를 가리키면서]이야. 우리 오빠가 그때 반장이었어. 우리 오빠가 먼저 오셔가지고. 애 태어나지도 않았어.

면담자: 아! 최기숙 구술자님 아버님이 먼저 오셔서.

구술자: 오빠가 먼저 오셔가지고, 이거 설립할 때 왔어.

1) 60년도라고 했던 건 계산 착오임. 41년생이고 29살에 올라왔다고 하니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도 초반에 올라오신 것으로 보임



면담자: 어디 설립할 때요?

구술자: 그 동양화학. 동양화학 첫 번 설립할 때 애네 아버지, 우리 오빠가 왔어요. 그리고 오빠가 반장이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량을 군대 갔다 제대해가지고 농사 1년 지었는데, 올라 오라고 그래가지고 올라왔지. 우리 오빠 때문에 여기 살게 된 거야. 자리를 잡았어. 말도 못해. 질퍽이고(질퍽거리고), 사람이 아니지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오새는 그래도 다 모도(모두) 발전이 돼 가지고 잘 됐어.

2. 학익동 거주지 근처의 풍경, 동양화학 인근 마을에서의 생활 모습 (00:01:42~00:08:54)

면담자: 최근에 거기 가보셨어요?

구술자: 안 가봤어요.

면담자: 안 가보셨어요?

구술자: 지금 애네 동생이 장사하는 데²⁾ 한 번씩 가보면 도시 다 됐어요. 옛날에 그 개천, 도랑에 집을 지어서 얼마나 잘해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때 내가 오니께네(오니까, 온 후에), 내가 와가지고도 인하대학을 지었어요. 처음에 산골(시골)에 있다가 오니께네 우리 집에서 건너다보면 막 불이 번쩍번쩍. '뭐 하는 데나?' 그러니까 인하대학 지은다 카더라고. 그래서 그 시절 인하대학 들어서고부터는 학생들이 오고 하니까 발전도 되고 사람이 살기 좋았어. 그때 말도 못해. 사는 게 뭐, 수도가 없고 전다지(전부) 이렇게 막 우물물을 프레비(두레박, 바가지) 퍼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2~3년 살았는데, 공동 수도가 돌았어(들어왔어). 공동 수도 돌아가지고 줄 서 가지고 물 받는 거야. 그게 몇 시까지 몇 시까지밖에 안 나와. 쪽쪽 달아 대놓고 받아가지고 있다가 시간 되면 또 물 나오고 딱 끊어지고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산별다리(산비탈) 빼딱한 데 살았어. 거긴 우물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빨래해 입으려면은 수돗물은 돈 든다고 그 밑에 우물에 가서 프레악질(두레박질, 두레박으로 퍼서) 해가지고 퍼 올라가지고 빨래해 입고 그랬어.

면담자: 그러면 그때 우물 말고 수돗물은

구술자: 수돗물은 우리 와가지고도 얼마나(한참 후에) 있다 생겼어요.

면담자: 그럼 공동 수도는 돈을 내고 받아가셨던 거예요?

구술자: 예. 그럼요.

면담자: 얼마 정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술자: 그때는 한 집에 20원인가 30원인가 그랬어요.

면담자: 아! 그렇게.

2) 최기숙씨 동생은 현재 학익 사거리에서 초밥집('스시향')을 운영하고 있음



구술자: 물도 시간제로 나왔어.

면담자: 일단 무조건 많이 받아놔야겠네요?

구술자: 많이 받아가도 뭐. 처음 와가지고 향아리도 없이 살았다니까[하하하 웃으시며]. 요새는 통이나 많지. 그때 플라스틱 통이 없었어요. 향아리도 비싸 가지고 못 사고. 우리 살아온 역사 말하려면 진짜 요새 사람 가라 하면 못 가! 지금 그 길 가라면 못 가! 향아리도 없이 살았는데. 물도 뭐 말하면 솔도 요만한 거에 받아가지고, 그때는 내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인생이 그리 살았어요.

면담자: 맞습니다.

구술자: 그러니까 사는 거라고 산 거지 뭐. 연탄불도 연탄이 꺼지면 요새 연탄 까만 재 있잖아? 요새는 번개탄이 있는데 우리 그때 번개탄도 없었어요. 저기 나무 썬 공장³⁾이 있었어. 학익동에 제재소가 있었어요. 여기 오래 사는 고참은 수지³⁾를 주어가고, 우리는 늦게 왔다고 그냥 좌수간(좌우간에) 찌꺼리기 수지를 모아가지고 불어가지고, 나무 꼬치 이런 거 주어가지고 모아놔다 연탄불 꺼지면 그걸로 불 살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면담자: 집이 연탄불로 난방을 하는 집이었어요?

구술자: 네. 그때 오래(오니까) 연탄 땀디다.

면담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응. 학익동.

면담자: 학익동 어디에서요?

구술자: 학익동. 지금은 그게 없지만은. 무슨 철공장 있었죠? 그 철공장.

면담자: 그러면 혹시

구술자: 철공장 이름. 무슨 철공장 있는 그 동네 살았어. 지금 도시여. 거기가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면담자: 한번 제가 여기에 한번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경찰서예요

구술자: 학익동 시장 경찰서?

면담자: 아니. 시장 아니고. 경찰서.

구술자: 어.

면담자: 그다음에 여기가 동양화학 부지.

구술자: 예. 동양화학

면담자: 예. 그리고 여기가 청구 화공이 있었던 자리.

구술자: 담배공장?

면담자: 예. 담배공장. 어머님 집은 어디셨던거예요? 담배공장 건너편이셨어요? 아니면 뒷골

3) '제재소에서 소나무를 자를 때 껍질이 부서진 채로 바닥에 떨어진 소나무 껍질 조각'



목이었어요?

구술자: 거기 뭐 철공사가 있었는데. 철공장이 아주 크게 있었어요.

면담자: 네. 혹시 조선철강공업?

구술자: 어. 우리 바로 그 옆에 살았어.

면담자: 여기가 학익동 풍림 아이원으로 예전엔 조선철강공업이었어요.

구술자: 예. 맞아. 조선 철강 거기서 살았어.

면담자: 어머니가 이 뒤에 사셨던 거예요? 이 조선철강공업 위애가 산이거든요?

구술자: 어 바로.

면담자: 그러면 여기 밑에?

구술자: 우리는 바로 그 행길 옆에 살았어. 철공이 여기라면, 요 옆에 살았어.

면담자: 아! 그럼 이쪽이구나. 약간 뒷동네에. 언덕?

구술자: 예. 언덕빼기. 거기 지금은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도시 다 되었던구만.

면담자: 그러면

구술자: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키며] 바람이 이렇게 세다 우리 집.

면담자: 그러면 그때 최기숙 조카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고모님이 경찰서가 들어와서 집을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이사를 나가셨다는 게 병무청 때문인가요?

구술자: 아니 경찰서가 들어온 게 아니고, 경찰서는 우리 오전 전에(오기 전에) 거기 생겼고, 학익동 시장 안에⁴⁾. 시장 가는 거 왼쪽에 있었고, 우리 집은 살다가 택시 회사⁵⁾가 생겼어.

면담자: 여기에 택시 회사가 있어요.

구술자: 어. 택시 회사. 바로 우리 집 앞에 담 사이에 있었어. 택시 회사가 우리 집을 사 가지고, 우리는 저기 가좌동으로 이사를 갔지.

면담자: 그러면 거의 어디인지 알 것 같아요. 그 택시 회사 이름 아시죠?

구술자: 어디?

면담자: 거기에 있는 거. 거기에 택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에 택시 회사가 하나 지금도 있는데, 삼우 운수인가 되게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구술자: 어데?

면담자: 거기 근처에.

구술자: 큰 회사?

면담자: 택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병무청 뒤에 큰 회사 택시 회사가 하나 있는데⁶⁾, 그게 들

4) 위치 설명 과정에서 미추홀경찰서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구술자께서 말씀하신 경찰서는 학익사 거리에 있었던 경찰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됨

5) 시기나 위치상 삼우운수(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됨. 삼우운수(자)는 미추홀구 학익동 522-6에서 1979년 9월 1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

6) 면담자가 동일운수와 혼동한 것임



어오면서. 그러면은 택시 회사가 어머님 집을 다 해서 택시 회사를 만든 거예요? 어머님 집은 다 헐린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우리가 세 살았던 집인데 다 헐리고 아파트 들어섰습니다.

면담자: 그러면 그 집의 구조가 혹시 기억나세요?

구술자: 구조가 이렇게 그냥 네모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앞애가 마루고 여기 방이고 안방 여기, 여기 방 하나, 여기 방 하나인데 우리는 여기 살았어. 방 3개인데 안집 하나 살고, 또 옆 집에 하나 살고, 그 집에서 세 집이 살았어. 뱃머리 집⁷⁾이라고 네모 번듯 해가지고.

면담자: 기억나는 이웃들이 있을까요?

구술자: 이웃집도 다 오두막 살이지 뭐.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리 살았어요. 그때 집 한 채에 5만 원짜리도 있었는데요 뭐.

면담자: 한 채에 5만 원?

구술자: 방 하나 부엌 하나, 5만도 큰 돈이여. 그거.

면담자: 엄청 크죠.

구술자: 비싼 게. 그때 10만 원, 15만 원짜리가 집이 아주 좋았어요.

면담자: 아! 그 당시에.

구술자: 우리도 그런 집도 못 샀어. 살다가 내중애(나중애) 한 3년 돼 가지고 국민주택! 지금도 학익동 가면 있어.

면담자: 국민주택?

구술자: 예. 국민주택 17채를 쪽~ 지어놨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이사 갔어.

면담자: 인하대학교 맞은편에?

구술자: 네. 인하대학교 맞은편에. 보면 인하대학이 다 보여요. 한 3년 만에 좋은 집 사가 가 살았어.

면담자: 잘하셨네요.

구술자: 열심히 해가지고.

3. 남편(김성호)이 다녔던 카바이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 (00:08:55~00:14:58)

면담자: 그러면 남편분이 일했던 회사가 동양화학 계열로 하는 카바이트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맞나요?

구술자: 예. 카바이트⁸⁾ 공장은 동양화학하고 한 계열인데, 동양화학은 이쪽에 송도 들어가는

7) 배 모양처럼 지은 집

8) CaC_2 (탄화 칼슘)으로 탄소와 칼슘이 결합한 물질로 칼슘 카바이드 도는 흔히 줄여서 카바이드라고 불림. 생석회(산화 칼슘, CaO)와 탄소 성분을 혼합하여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만들 수 있음. 통상 산업적으로는 탄산칼슘($CaCO_3$)이 주성분인 원료 석회석을 석탄이나 코크스와 섞어서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만드는데 이때 석회석이 열분해되어 생석회가 만들어지고 그 생석회가 탄소 덩어리인 코크



길 쪽에 거기 있고, 카바이트 공장은 조선철강, 담배공장 옆에 카바이트 공장이 있었어요.

면담자: 아! 그쪽에 있었구나.

구술자: 우리 아기 아빠가 거기 다녔어.

면담자: 되게 집이랑 가까우셨네요?

구술자: 가까웠죠. 지금 버스로 말하자면 한 코스? 버스 한 코스 됐어요.

면담자: 그러면은 약간 언덕이었어요?

구술자: 우리 집 그 때는 언덕이 아니지. 사 가지고 나왔는데.

면담자: 그러니까 집 말고, 그 카바이트 공장.

구술자: 카바이트는 언덕 아니에요. 큰길이지.

면담자: 그럼 어디를 말하는거지?

구술자: 공장을 크게 지었지. 바로 어디냐하면 대우전자 맞은편이야. 이쪽으로 우로(위로). 학
익동 가는데. 대우전자에서 길 횡단보도 건너면은 여기 조금 가면 카바이트 공장이야.

면담자: [출력해 간 지도를 보면서] 네. 여기 이쪽이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 대우 공장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송도 넘어가는.

구술자: 아! 송도 길이구나.

면담자: 그러니까 여기서 동양화학이 있고 맞은편에.

구술자: 예. 그렇지! 카바이트는 이쪽에[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면담자: 이쪽에 있었네요. 카바이트 공장이 뭐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구술자: 거기는 돌골(돌), 이렇게 자자한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녹카(녹여) 가지고, 카바이트를
만드는데, 불쭈는(불피우는) 거 만들었어요. 하얀 덩어리(덩어리) 갖다가 저런 데 심지 해가지
고 불을 붙이면 파란 불이 붙는데, 우리 그거 쓰고 살았어. 그때 전기가 없어 가지고.

면담자: 사람들이 쓰는 등불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구술자: 지금도 공장에 카바이트가 안 들어가면 회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아주 요절했
서9). 요절했어. 우리는 이런 덩어리 얻어와 찌뿌레기(찌끄레기, 조각들) 주에다가 놓고 저런
통 같은 데 담아가지고 그 심지 박아 물 붓고 그러면 심지에 불이 파랗게 왔어. 이거 기름 호
랑불보다 더 밝았어요.

면담자: 아~ 그게요?

구술자: 예. 우리 그거 쓰고 살았어요. 전기 없을 때. 그것도 회사 다닌 사람이라 그렇지, 회

스와 반응하여 탄화 칼슘이 만들어짐. 마치 분필이나 석회 덩어리 같은 형상. 비교적 싸고 구하고 다
루기 쉬운 화학물질로 일상적 용도로는 물과 반응시키면 아세틸렌 가스(C_2H_4)를 얻을 수 있는데 여
기에 불을 붙이면 고온을 내며 타면서 밝은 불빛을 내기에 간이 조명으로 사용 하였음. 아세틸렌 조
명은 독특한 아세틸렌 냄새도 나고 다 쓰고 나면 질척한 소석회(수산화 칼슘 $Ca(OH)_2$) 찌꺼기 및
석회수가 남게 되지만 싸고 간편해 예전에 전기가 없는 야외주점 포장마차 등에서 간이 조명으로
널리 쓰였음.

9) 중요했다는 의미



사 안 다닌 사람 호랑불 놓고 살았어.

면담자: 아~ 호롱불. 호랑불, 호롱불.

구술자: 경상도 사투리야. 호랑이.

면담자: 아! 호랑이. 이렇게 또 배우네요.

구술자: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도시지.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 어디고 거기? 준영이 사는 데 그 옷동이 이름 뭐니? 거기 절 있잖아? 절 있는데 그 동네에서 애[최기숙씨를 가리키며]는 태어났어.

면담자: 서광사.

구술자: 아! 서광사인데, 그 옆에서 애가 태어났어.

면담자: 아!

구술자: 넷째 딸로 태어났어.

면담자: 넷째 딸. 지금 자꾸 애라고 하는 분은 최기숙 씨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예?

면담자: 최기숙 조카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예. 애하고 애 바로 위에 언니하고 삼 남매가 여기 와서 낳았어. 두 형제는 안동에서 낳고.

면담자: 그럼 어머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우리는 아들 둘 딸랑 낳아가지고 올라왔어. 6살 먹고, 4살 먹은 대로 올랐지. 큰아들은 지금 환갑 지냈어(지났어).

면담자: 네. 그러면 남편분은 안동에서 만나서 오신 거예요?

구술자: 그럼요. 고향에서 같이.

면담자: 고향에서 만나서.

구술자: 이사 와 가지고 살았지.

면담자: 남편분이 카바이트 공장 다니실 때 월급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술자: 그때 월급 9천 원. 1만 원. 올라가지고 내제(나중에) 1만 5천 원, 그러다가 잔업 해가지고 한 3만 원까지 받았어.

면담자: 잔업? 와~ 3만 원이면

구술자: 그때 큰 돈이었어. 쌀이 몇 가마니라?

면담자: 집이 하나가 5만 원이었으니까.

구술자: 쌀 한 말에 300원 할 땐데, 쌀 한 가마니에 5천 원 할 때야. 단말에¹⁰⁾ 5천 원 할 때. 우리는 힘은 들어도 좋은 공장 들어가 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쌀을 가마니 띠로(채로) 갖다 놓고 먹었어. 한 가마니 들라(들여) 놓고 먹었어.

10) 쌀 80kg, 한 가마니, ~말은 쌀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 한 말은 16kg이고, 단 말은 다섯 말을 의미



면담자: 굶지는 않으세요?

구술자: 기억도 안 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세를 살아도 그 동네에서는 좋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카바이트 공장이 이름 난 회사였거든.

면담자: 카바이트 공장 이름을 혹시 아세요?

구술자: 카바이트 공장이야.

면담자: 그냥 카바이트 공장이라고?

구술자: 네. 카바이트 공장이고, 소속은 동양화학 소속인데.

면담자: 아! 네.

구술자: 농약이 지금 다 없어졌다대?

면담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없어진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구술자: 참 컷지. 거기(동양화학) 돌 같은 거 소리 나면 동네 동네 소리에 잠을 못 잤어요.

면담자: 그 돌 때문에?

구술자: 이런 자갈들이 올라가서 저 아파트 5층, 10층 높이의 건물에서 늘어나는(내려가는) 거야. 따라라라락 돌이 들어가고, 이 동네가 떠나갔어요. 그런 데 살았어.

면담자: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구술자: 냄새나고 말도 못 하죠. 카바이트 공장은 퐁꿀레(퐁냄새)가 나.

면담자: 퐁꿀레라는 단어는 어떤 말일까요? 퐁 냄새?

구술자: 아주 퐁도 아주 냄새가 독해요. 그제.

면담자: 근데 어떻게

구술자: 그렇게 살았어. 지금에야 참 살기 좋아요. 우리 살아온 거는 말도 못하지. 우리 청춘 때는 정말 가시밭도 헤매고,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완전 가시밭 속에서 살다시피 했어. 지금 이렇게 발전이 돼가 너무 좋지.

면담자: 네. 맞습니다.

구술자: 지금 젊은이들은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면담자: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잘 살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편히 사는 거거든요.

구술자: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지.

면담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구술자: 그렇지 그건 도움이 되죠.

면담자: 기록으로 무조건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술자: 맞아요. 요새 세월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집이 내한테 인생의 꽃자리야. 이게.

면담자: 꽃자리요?

구술자: 가시밭, 물 건너 여기 와가지고, 지금 꽃자리 온 거야.



4. 학익동에서 살았던 집, 집의 구조와 살림살이 장만에 대한 이야기 (00:14:59~00:18:32)

면담자: 그러면 어머니는 일 안 하셨겠네요? 남편분이 잘 벌으셨으니까요?

구술자: 일했지.

면담자: 무슨 일 하셨어?

구술자: 나는 연안 부두에서 도시가스 문을 때, 3년 땡기면서 사무실 청소했어.

면담자: 젊은 시절예요?

구술자: 그렇지. 젊었지.

면담자: 몇 살 때였을까요?

구술자: 아들 둘하고 네 식구가 숟가락 한 가락도 안 가지고 맨손으로 올라왔어요. 애네 엄마 하고도 한 1년 살았어요. 애네 엄마가 앞장서가지고 할부 그럭(그릇) 내줬어. 할부로 솔 한 그릇 하고 숟가락 3개 하고 절 한매¹¹⁾ 하고 냄비 하나 하고 그럭 3개 하고. 애네 엄마가 앞장서 가지고 구해줬지. 애네 엄마가 그래도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럭 장사가 할부를 줘서 한 달에 얼마씩 갚았어.

면담자: 아! 그렇게 해서 살림을 시작하셨구나.

구술자: 아주 그냥 부뚜막이 한 부엌 컸어¹²⁾. 2만 원짜리 전세 살았어. 방이 이만 됐어요. 요 위에만 했는데 한 부엌 컸어.

면담자: 부엌을 같이 쓴다?

구술자: 응. 한 부엌 컸어. 연탄불 구멍 이거 하나인 2만 원짜리 전세 살았어. 그래도 우리가 부자로 살았어. 다른 사람 짝(사글세)로 살았는데, 우리는 부자로.

면담자: 그러게요. 그 당시에 전세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구술자: 시골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올라왔지.

면담자: 아! 그걸로 전세를.

구술자: 돈 모아서 차비 해가지고 올라오니깐, 전세가 2만 원이래. 그래서 전세 거리 딱 줬죠. 전세가 2만 원이면 그때 큰 돈이었어요.

면담자: 그쵸.

구술자: 다른 사람 다 짝으로 살았어.

면담자: 사글세 살았다는 거죠?

구술자: 예.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면담자: 제가 나중에 단어를 모를까 봐. 단어를 한 번씩 물어보는거예요.

구술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전세 2만 원짜리 방이 푹빵(딱) 요만(현재 방의 크기) 했어. 근데

11) 젓가락 한 세트, 경상도 안동에서는 젓가락을 절이라고 했음

12) 부엌이 크다는 의미



그 집이 가을에 집을 지어가지고, 겨울 때면 베르박(벽)에 고드름이 얼어요. 가을 집 지으면
은.

면담자: 집에서?

구술자: 응. 가을 집을 지으면은 겨울 되면은 벽에 고드름이 얼어. 얼음이 막 이렇게 얼어요.
봄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에 오니까 가을 집을 지었더라고. 우리 애들 어릴 때 베르박에
붙은 고드름 따 먹었어. 영준이, 영각이가 고드름 따먹었다고 봐야해요. 그때 추워가지고 얼굴
도 못 내놨어. 그렇지 뭐! 벽돌도 아니고 쓰레트(슬레이트)로 집을 지었으니 오죽하겠어요? 겨
울에 진짜 고생한 거 말도 하지 마라. 고생했던거 말하려면 아주 책을 엮어가지고 차로 한 채
실어도 다 못 실어. 대충 대충 하니 그렇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가씨인지 애기엄마인지 모르
겠다마는 우리들이 허리 졸라매고 고생한 때미레(때문에) 좋은 세월 만나가 산 거요. 나 같은
경우는 산골에 살다가, 경상도 안동이 산골짜기잖아. 여기에 대면 도시도 아니고. 거기 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삼사면(살다가) 길쌈하고 애만 길리다가 여기 와 보니까 그야말로 도시
야. 루뽕집¹³⁾이고. 그때 기와집이 없고 루뽕집이었어.

면담자: 네. 루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루뽕 알아요?

면담자: 네. 들었어요.

구술자: 그리고 뱃머리집. 방 하나 부엌 하나.

면담자: 그 뱃머리집이라는 게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술자: 응. 그게 뱃머리지 뭐. 딱 이렇게.

면담자: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으니까?¹⁴⁾

구술자: 뱃머리집¹⁵⁾이라고. 그것도 처음 온 사람은 땅도 이거 다 시유지 땅이라 돈만 있어가
백들만 찍으면 내 집 만들면 돼. 그때는 그래 우리가 늦게 올라와서 세를 얻어가 살았는데 그
나마 우리는 더 부러워했어. 안동댁이 와가지고 금방 샀다고.

면담자: 안동댁?

구술자: 나 안동에서 왔다 해서 안동댁이라고.

5. 남편(김성호)이 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그리움 (00:18:33~

13) 검은 색의 두꺼운 기름종이로 지붕을 덮은 가옥

14) 인터뷰 당시엔 뱃의 모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해서 질문을 했으나 검수 과정에서 구술자께서
'뱃머리집은 바다에서 사용하는 배의 구조처럼 잘 만들어진 집이라는 의미'라고 말씀 하심. 검수과정
에서 그 동네에 '월남집'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월남집은 월남에 다녀온 사람이 지은 집으로 방도
크고, 제대로 지은 집으로 방세가 무척 비쌌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월남집에 산다고 하면 다
들 부자라고 했다고 함

15) '가운데 부엌을 두고 양쪽에 방을 하나씩 두는 구조의 집'을 의미한다고 검수 과정에서 구술자에게
재확인 함



00:21:23)

면담자: 아!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남편분은 얼마나 일을 하셨어요?

구술자: 카바이트 공장에 한 10년? 10년 다니고 문 닫을 때까지 다녔어요.

면담자: 거기가 10년 다니고 문을 닫았구나.

구술자: 예. 다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더라고. 문 닫고 나왔지. 그래 나와가지고 가좌동 가가지고, 가스통 있잖아? 가정집에?

면담자: 저도 어릴 때 썼어요.

구술자: 그거 회사 다녔어.

면담자: 가스 LPG 가스 회사 다니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술자: 어. 그 공장 다녔어.

면담자: 그럼 그걸로 계속 다니셨던 거예요?

구술자: 예. 부지런해 가지고 거기다 국민연금 들어가시고, 거기(LPG회사) 가서 국민연금 들었어요.

면담자: 그때 당시에?

구술자: 요새 내가 얼마나 잘 타 먹는지 몰라[가슴을 치면서].

면담자: [다 같이 웃으며] 축하드립니다.

구술자: 국민연금 가지고도 진짜 내가 부자로 산다니까. 할머니가 한 달에 30 얼마를, 35만원 정도 타 먹으면 큰 돈이지.

면담자: 그렇죠.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구술자: 김성호

면담자: 김성호.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되죠?

구술자: 1살 차이.

면담자: 그러면은 40년생?

구술자: 예. 지금 살았으면 뭐야

면담자: 구십 넘으셨겠다.

구술자: 토끼띠. 지금 86.

면담자: 아! 90이 안 넘었겠구나. 그럼 언제 돌아가셨어요?

구술자: 2011년도.

면담자: 혹시 왜 돌아가셨는지 물어보면 실례가 될까요?

구술자: 암에 걸려서.

면담자: 일하시면서 다치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구술자: 아니예요. 나이 있어 가지고 회사를 그만 다니고 경비로 다녔는데, 일하러 갔다가 쓰러져가고 병원 갔더니 뇌경색이라고.



면담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암으로.

구술자: 한 5년 비추다가(살다가) 세상 떠났어.

면담자: 그리우시겠어요? 같이 고생한 동반자인데.

구술자: 다들 애들 가르치고 장가 보내고 손자 보고 손녀 보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도 저들이 알아서 밥 먹고 사는데, 그 행복을 내 혼자 보니까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 고생만하다 죽었거든.

면담자: 그러니까요.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구술자: 부채 하소. 물도 있어. 냉장고 든거.

면담자: 이것도 차가운데, 입이 마르시는 것 같아요.

구술자: [최기숙을 바라보며] 야! 야! 상 좀 여기 놓고 참외 좀 깎어 놔.

면담자: 저희가 이거 하다 말고 먹을 수가 없어서요. 녹음을 하는 거라서 하다가 말고 먹지를 못해요.

구술자: 끝나고 먹을 거야? 더 알 게 뭐가 있어요?

면담자: 아주 많습니다.

구술자: 이래 가지고 대학교 앞에 전(전시)을 하려고 그랬나 보다.

면담자: 네. 한번 사진전도 할 거고 이래가지고.

6. 여성 노동자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 당시 생활사 이야기 (00:21:24~00:27:55)

면담자: 그러면 어머니는 연안 부두에 도시가스 놓는 공사하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은 따로 안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딱 일도 많이 했지.

면담자: 많이 하셨죠? 어머니 하셨던 얘기 좀 해주세요.

구술자: 도나무 공장. 도나무 공장. 바로 용현동 그게 지금 무슨 큰 회사 들어섰대요?

면담자: 거기가 어디쯤인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구술자: 거기가 아가씨들은 모르지.

면담자: 도나무 공장이 뭐예요?

구술자: 도나무깎. 도나무깎.

면담자: 드럼통? 드럼통? 드럼통?

구술자: 도나무통 이런 거. 기름통 그걸 씻어야만이 또 가서 기름을 가져오나 봐요. 그래서 그 도나무 공장에 가서 밤에 야간도 하고

면담자: 그거면 씻으면



구술자: 아주 소리가 대단해요. 그 통 안에다 철사 이런 거 넣어 가지고 하는데, 요새 차 미끄러지지 말라고 거는거 있잖아? 눈 올 때.

면담자: 예. 체인.

구술자: 어. 그 통 안에 약도 넣어가지고 기계로 막 돌려. 그 소리가 귀가 떠나가. 그래가지고 그걸 굴러야지. 그것도 하고 농약 공장도 참 많이 다녔어. 농약 공장은 지금도 있지?

면담자: 지금은 농약 공장은 아닌데 공장 형태는 남아 있어요.

구술자: 남아 있지? 떠났어? 공장이?

면담자: 농약은 안 만들고.

구술자: 아! 그 농약 공장 많이 다녔어.

면담자: 공장 가서 뭐 하셨어?

구술자: 거기 가서 레떼루(라벨)도 붙이고, 또 가루약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봉투에 담아 레떼루 붙여가 내보내서 팔고. 그때 하루에 200원 받았어. 한 달 빠져봐야 6천 원이야. 그 월급도 보통 월급이 넘어.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갔어. 뺨이 있어야 들어가.

면담자: 그러니까 어떻게 다 여기저기 일을 다 골고루 하신거예요?

구술자: 학익동 살 때 거기 들어갔지.

면담자: 알음알음 소개로?

구술자: 그렇지. 식당에서 일하는 고참 아줌마 신랑하고 우리 신랑하고 한 회사 다녔어. 그런 연줄이 있어야 들어가지. 생판은 못 들어가. 그래도 농약 공장 월급이 남자들도 200원으로 우리랑 똑같았어. 머시매들은 밖에서 무거운거 싣고 땀겨도 200원. 여자들은 안에서 레떼루 붙여도 200원. 일은 편안히 했어. 농약 공장.

면담자: 그랬겠네요.

구술자: 하루에 200원이면 한 달에 내 잘 당겨야 6천 원 받았어. 그것도 큰 돈이지 뭐. 그때는 쌀 한 되에 30원 할 때야.

면담자: 어디서 주로 쌀은 사셨어요? 쌀이나 이런 뭐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어디 가서 주로 사셨어요?

구술자: 우리 집 앞에 가게. 여기 강씨네 가게라고, 쌀도 외상 한 달 갖다 먹고 월급 타면 갖다 갖고 그랬어요.

면담자: 거기 집 앞에 가게가 있었나보네요?

구술자: 있었지. 국숫집도 있고, 가게 집도 있고, 연탄집도 있고, 사람들이 외상을 다 줬어. 우리 한 달 내에 외상 갖다 먹고 월급 타면 갖다 주고 그랬어.

면담자: 동양화학 후문에서 쪽 오다 보면 식당도 있고 점방도 있고 그랬던데.

구술자: 그럼 다 있죠. 구멍 가게.

면담자: 세탁소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구술자: 이름도 아직 있어요. 충남 상회는 쌀집도 하고 연탄도 팔고, 강 씨네 집이라고 그 집도 연탄도 팔고 쌀도 팔고.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은 다 가게해서 돈 벌었어. 돈 이자 놀이하고.

면담자: 이자? 일수?

구술자: 일수가 아니라 이자.

면담자: 이자는 또 뭐예요?

구술자: 일수는 매일 주는 거고.

면담자: 네.

구술자: 우리는 한 달. 만일에 5부, 6부 급할 때는 7부, 8부를 쓰는 거야. 그때 돈놀이 해가 돈 번 사람 많아요.

면담자: 그 동네에?

구술자: 쌀집 아줌마가 있었는데, 우리 남편 회사가 좋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어요. 내가 앞장 서가지고 그집 돈을 우리 사촌도 빌리고, 애네 아버지도 빌렸어요. 내가 앞장서고 돈 얻어서 이자를 잘 갖다 줬더니 밤에 자다가도 돈만 달라카면 그 어마이가 돈을 주는 거야. 내가 월급만 타면 내 돈을 갖다 이자 주고 다음에 오빠들, 사촌 동생들이 주는 거 받아 쓰고 그랬어요. 그래 신용을 얻어가지고 그 어마이가 내가 말만 하면 돈 줬어. 그 엄마가 하도 이자를 잘 주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 현미 엄마라고, 너(최기숙씨) 언니 은주는 안다. 내가 이자 주는 것 갖다가 은행에 꼬박꼬박 예금했더니 1,500만 원이란다. 그게 어디예요? 그 시절이라 하면. 20년 넘었다. 그런 세상 살았어요.

7. 집을 사고 팔면서 차액으로 살림을 불렸던 에피소드 (00:27:56~00:33:21)

면담자: 네. 그러면 학익동에서 살다가

구술자: 학익동에서 살다가 그 집을 130만 원에 샀어요. 49평짜리를.

면담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술자: 거기 주택. 지금도 있어. 학익동에 국민주택.

면담자: 장미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술자: 장미 아파트 말고 장미 아파트 건너편에 국민주택. 그 동네 살았어요. 그거 샀는데 그게 바로 택시가 앞에 들어서는 바람에. 택시 회사는 밤에 씨끄럽습디다. 밤이라고 교대할 때는 굉장히 분주해. 담 하나 사이니까. 그래 그 집을 15년 살고 1,500만 원 받았어. 그 집에 끈을 잡아가지고(종자돈으로해서) 우리가 정말 아들이고 뭐고 다 살게 됐어. 집 한 채씩 다 사 주고.

면담자: 국민주택에 사시다가 가좌동으로 이사 가신거예요?

구술자: 예. 택시 회사로 그 집 팔고. 한 300 더 받았어. 돈 더 주겠다고, 그 택시 사장이 좀 미안하다고. 자기도 시끄러워서 못 산다 했다고. 우리 주택을 사면 택시하고 나서 목욕도 하



고, 와서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300 더 줬어. 1,500이면 그때 큰 돈이었어. 그때 그 거 팔아가지고 가좌동 집하고 안동 집. 집을 두 채 샀어.

면담자: 우와!

구술자: 근데 안동 집 하나는 750에 샀고, 또 가좌동 가가지고 80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아니야 30 몇 만원 주고 사고, 지금도 그 집 아직도 있어. 가좌동 18번지¹⁶⁾. 가좌동 바로 영창악기 뒤에.

면담자: 영창악기 뒤에?

구술자: 네. 거기 살았었어. 그 집을 그때 3,500에 우리 아들한테 팔았어. 둘째 아들 집 해 준다고. 남 주기 아깝잖아요?

면담자: 그럼요.

구술자: 거기가 전철이 나가지고 3,500짜리가 지금 1억 넘게 가고 있지. 바로 고 영창악기 뒤에.

면담자: 영창 악기. 네. 한번 찾아볼게요.

구술자: 아파트가 3동인가 4동 뿐이야. 5층 건물인데, 옛날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고. 걸어 올라가야 되고. 지금도 거기는 공단이 많잖아요? 공장이 많잖아. 집만 내놓으면 처녀, 총각이 잘 살아.

면담자: 거기는?

구술자: 남보다 싸게 놓고. 아즉(아직) 그 집이 있어요.

면담자: 그러면 가좌동에서 사시다가

구술자: 가좌동에서 살다가 동암으로 왔지.

면담자: 동암?

구술자: 동암 바로 역 앞으로 왔어.

면담자: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요?

구술자: 응. 아들 형제 데리고. 거기서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보고, 손자 손녀 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5층 건물인데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세를 놓고 여기 새로 왔어. 우리 아들이 내가 혼자 있으면서 다리 아픈데 오르내기 힘들다고 팔아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지.

면담자: 여기[현재 살고 계신 집]를 오신 거네요.

구술자: 그래서 진짜 꽃자리로 온 거야. 편한해.

면담자: 돈이 모이니까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계속 이사를 다니셨던 거죠?

구술자: 인천에서 이사를 얼마나 했는데, 이사를 10번도 더 했어.

면담자: 아유. 되게 많네요.

16) '가좌동 18번지'는 현재 검색 상 '산'으로 나옴. 현재 영창악기 주변은 대부분 공장 지대이지만 구술자의 기억에 따르면 5층짜리 아파트이고, 3~4개 동으로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영창악기 공장과 전철역 사이에 있는 1985년에 준공된 '유진아파트'일 것으로 판단됨



구술자: 많이 했어요. 집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집도 좀 나오면 돈 좀 붙여 팔고, 또 다른 데 사 가지고 또 붙여 팔고. 모자라면 은행에다

면담자: 네. 대출 받아서?

구술자: 대출받아서 사는데, 대출 갚을 때 집값이 몇 배 오릅니다.

면담자: 네. 그 시절엔 그렇죠.

구술자: 그런 식으로 집을 불콰어(불렸어).

면담자: 예. 그 시절에 가능했던.

구술자: 집 헛수는. 집을 하나, 둘[손가락으로 세면서]. 집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나 샀어. 맨주먹으로 올라와가지고.

면담자: 그러니까요. 최기숙 님 아버님한테 많이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왜?

면담자: 소개해서 왔으니까요.

구술자: 고맙지.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준 건 없지만, 마음은 잘해주잖아.

면담자: [최기숙 구술자를 가리키며] 구술하신 내용 중에 엄마가 아프셨잖아요? 그때 엄마가 아프면, 고모가 와서 밥 먹어라 많이 하셔서 고모네를 자주 갔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구술자: 애들이 진짜[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애들 엄마가 37살에 죽었어요. 애[최기숙 조카를 가리키며]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어.

면담자: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머니가 일찍 가셨기 때문에 고모님이 많이 돌봐주시고.

구술자: 몰라. 애들 언니가 ‘고모 때문에 우리 형제 간에 모여 있다고. 안 그러면 뽀뽀이 흩어져 살았을 텐데.’라고 그래. 내가 진짜 뭐 키우지는 않았지만 일은 많이 해줬지. 학교 다니라고. 애들 고등은 다 나왔어.

면담자: 그러니까요. 그 밭도 같이 매고.

구술자: 그럼 한 식구로 살았죠. 내가 많이 도와줬지. [최기숙 구술자를 보면서] 그렇지? 애들도 불쌍하지만, 우리 오빠도 불쌍하고, 먼저 죽은 형님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 식구들이야. 요새 애들이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더 바라지 않네.

8. 동양화학 인근 공장에 대한 기억 (00:33:22~00:35:55)

면담자: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어머니 동양화학 근처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구술자: 공장? 많았지.

면담자: 기억나는 공장 있으세요?

구술자: 두부 공장. 밤새도록 두부 만들면 동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면담자: 그것도 잠을 못 자요?

구술자: 밤새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두부 파는 거야.

면담자: 아. 두부 공장.

구술자: 두부 공장, 담배 공장.

면담자: 네. 담배 공장에 있었어요.

구술자: 그거 어데 보면 불 켜가 하는 무슨 뭐 태광산업¹⁷⁾인가? 불이 펄펄 나는 게 있어. 저기 뭐야 지금 인하대학 맞은편에 5층 건물 아파트 들어섰던.

면담자: 장미아파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구술자: 장미아파트.

면담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구술자: 아파트 자리에 무슨 태광산업이라고 큰 공장이 있었어요. 저녁으로 하고 밤낮으로 돌아오는 거 3교대로 돌아가는.

면담자: 태광산업.

구술자: 그거 있었고 동양화학 있었고.

면담자: 태광산업은 뭐 하는 데였어요?

구술자: 철 빼내는 데. 그 근처 살아보면 알 거야. 나는 그 공장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그 근처 사는 사람 물어보면 알 거야. 바로 장미아파트 자리에.

면담자: 네. [지도를 보며] 그러니까 동양 전선 한국공업 한국제강 삼성제강. 장미아파트가 이렇게 변했네요.

구술자: 맞아. 그거 있지?

면담자: 있긴 한데, 태광산업이라는 이름은 중간에 잠깐 있었나봐요.

구술자: 공장 큰 거 있고, 담배공장은 담배 냄새가 엄청나게 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껌소리 못하고, 일 다니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공장 많았어. 담배공장 있지, 철강공장 있지 거기 또 뭐 두부 공장이 있었지, 또 나무 썬는데 있었지, 백돌 공장이 있었지. 뽕뽕 들어가면 돈 벌어먹기 좋았어요. 남자들은.

면담자: 일하는 데가 어디든지 있었다?

구술자: 그럼. 학익동 뽕뽕 돌아가면 다 일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뭐 벽돌 공장도 있었고 지금 거기는 도시가 돼 가지고 어마어마하더구만.

면담자: 혹시 유공 저유소에 대한 기억은 있으세요?

구술자: 유공은 지금 아파트 크게 들어섰잖아요? 유공은 기름 나는데.

면담자: 네. [최기숙 구술자를 가리키며] 거기 살았잖아요?

17) 미추홀구 소성로 72(학익동 장미아파트)에 있었던 철강회사로 구술자마다 회사 이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듯함.



구술자: 어. 애네 집 바로 그 앞에. 거기 사는 거 다 알죠.

면담자: 그 일대가 좀 어땠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구술자: 유공 공장 생기고 바로 네 애네가 그 동네 살았어.

면담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구술자: 그쪽에 안 살아봐서, 살아보지는 않았어. 애네 때문에 자주 가기는 해도 공장이 있는 것만 알지.

면담자: 아. 있는 것만.

구술자: 유공이 없어지고 요새는 아파트 크게 들어서 없어졌습디다. 지금 몰라보게 달라졌어.

9. 자녀 양육 시절의 에피소드 (00:35:56~00:38:15)

면담자: 두 아들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새인천 풀장이나 이런 데 안 가셨어요?

구술자: 왜! 갔지!

면담자: 가셨을 것 같아서.

구술자: 동양화학에 다닌 사람들, 카바이트 사람들은 무료야!

면담자: 무료?

구술자: [큰 소리로 강조하시면서] 무료! 무료로 갔어.

면담자: 카바이트 공장도 동양화학 계열이기 때문에 무료였겠네요?

구술자: 그럼. 무료로 갔죠. 애들 때문에 그 카바이트 공장 다니면 무조건 무료로 돼갔어.

면담자: 자주 가셨어요?

구술자: 여름 한철 꼭 땡겼지. 애들하고. 그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더 있나. 청학풀장하고.

면담자: 청학풀장도 가셨어요?

구술자: 그럼요.

면담자: 청학풀장이 훨씬 좋지 않았어요?

구술자: 좋았죠. 거기는 공기도 좋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면담자: 없어요. 풀장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술자: 거는 산에서 나온 물이라 물이 참 좋았어요.

면담자: 물이 엄청 차갑죠.

구술자: 그리고 애들 학교 다닐 때는 저 문학에 맨날 소풍 가고 그랬어요.

면담자: 문학산?

구술자: 예. 문학산. 애들이 학익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소풍 갈 때 그것뿐이야. 문학동. 거도 지금 집에 들어서 가지고 도십디다(도시가 되었다).

면담자: 네. 맞습니다.

구술자: 도시 다 났어. 옛날 하면 진짜 기억이 조금 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도시가 다 났어.



면담자: 옛날에는 어땠어요? 거기가 문학동 거기가 어땠어요?

구술자: 문학에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거기로 소풍 갈 때마다 갔지 뭐. 몇 년 다녔지. 우리 애들.

면담자: 어머니는 안 가셨어요?

구술자: 같이 땡겼지.

면담자: 같이 따라 다니셨어요?

구술자: 나는 우리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안 갔지.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 대학을 다 갔지만은 초등학교 때는 6년까지 내가 따라땡겼어.

면담자: 소풍을? 왜요?

구술자: 그땐 다 갔어. 엄마들이.

면담자: 아! 진짜요? 도시락 싸 가지고?

구술자: 아~ 그럼요.

면담자: 우와 신기해.

구술자: 아유 지금은 안 가도 그때는 다 갔어요. 예전에 학교 안 가는 어린애들도 다 엄마한테 업혀 갔어.

면담자: 도시락 뭐 싸 가지고 가셨는지 기억나셨는지?

구술자: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한 80이 됐었거든. 손자들 학교 가서 소풍 간다고 그 경상도서 밤차 타고 올라오고 그러셨어.

면담자: 우와~ 그래서 같이 소풍 가신거예요? 문학산에?

구술자: 같이 소풍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랬어요.

면담자: 와! 그런 사진들 좀 어떻게.

구술자: 사진이 지금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면담자: 찾아봐 주세요.

구술자: 앨범을 너무 깊이 여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모자도 쓰고 그때만 해도 젊었어. 애네 엄마는 새댁이지 뭐.

10. 동양화학이 지역 주민에게 준 영향에 대한 생각 (00:38:16~00:39:34)

면담자: 네. 어머니가 그 동네 사시면서 동양화학이 어머니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요?

구술자: 그건 우리는 삶에 먹고 사는 터전이라 가지고, 항상 그 공장을 쳐다 봤지. 너무 우러러 봤죠. 하늘같이 높이 봤지.

면담자: 공장 굴뚝도 워낙 높으니까.

구술자: 그럼. 공장도 크고. 뭐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항상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니까는. 공장을 보는 게 아니고 맨날 하늘 보듯이 쳐다봤고.



면담자: 아! 그러셨구나.

구술자: 그렇게 소중한데요.

면담자: 소중한죠. 근데 없어져가지고. 근데 더 잘 돼서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돈 더 많이 벌어서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동양제철화학 이름을 OCI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군산이나 익산으로 이사 갔다고.

구술자: 그랬을거요. 동양화학이 진짜 오래 있어. 오래 됐어요. 오래 있었어.

면담자: 냄새나고 시끄러워도 그래도 우리를 먹고 살게 해 준 곳이었으니까.

구술자: 맞아요. 그때 시끄러워도 말 한마디 안 했지 뭐. 연탄 공장도 있었는데, 연탄 실컷 먹어도 먹고 사는 게 거기니까.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오히려 나갈까 봐 걱정했지. 나갈까 봐 걱정했지.

면담자: 나갈까 봐?

구술자: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11. 부업으로 뜨개질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 (00:39:35~00:45:50)

면담자: 열추 얘기는 다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더 하고 싶으신 기억나는 것 중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

구술자: 아니 그냥 없어. 내 살아온 기억 그것뿐이야.

면담자: 주변에 여자분들이 다니셨던 회사들 얘기는 없나요? 일하고 오시면 서로 이야기 하시잖아요?

구술자: 아! 그거! 회사 일할 때는 주로 농약 공장하고 또 옷 공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실밥도 따고[옛 기억이 나시는 듯 하하 웃으시면서].

면담자: 실밥도 따고 그런 거 하고 오셨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는 거죠?

구술자: 그럼! 거기 가서도 따고, 또 집에 와서도.

면담자: 아! 부업도 하고.

구술자: 그럼! 진짜 돈이라면 그때 다 했지. 옷 뜨개질하면 하나에 3원, 4원이라고 해서 다니고. 내가 조장으로 뜨개질 했어.

면담자: 아! 조장!

구술자: 돈 나오면 다 했지. 인천에 오니까 이렇게 할 게 없습디다. 그때는 공장이 없어 남자들만 다니는데 남자들도 회사 들어가기 힘들어. 애네 아버지가 반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뜨개질 조장했어. 가가지고.

면담자: 뜨개질 조장? 어디에서요?

구술자: 그 학익동에서.

면담자: 학익동에서? 뜨개질 조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술자: [그 당시 뒀던 뜨개 옷을 꺼내시며] 모습을 보여가지고(보여주면서) 얘기해야지.

면담자: 네. 뜨개질 조장 저는 처음 들어봐요.

구술자: [물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창고 방에서 뜨개옷을 꺼내면서] 이거, 이거 뜬거.

면담자: 그걸 그때 뜨신 거예요? 세상에나! 어머니! [지원자 선생님을 향해] 선생님!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지원자: 우리 엄마도 떠달라고 그랬는데.

구술자: 이건데, 그때 이런 거 썼어. 그때 이거를 외국으로 수출했어. 내가 이거 뜰 줄 알아 가지고 조장하면서 사람 모아 가지고. 내가 동인천 가서 실 갖다가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옷 만들어 가지고 가면, 돈 그때 이거 한 개 하면 10원 받았어.

면담자: 이거 한 개를 했는데 10원을 받았다고요?

구술자: 아니 이거 하나 떠주면 내가 먹는 게 10원이었어. 뜨는 사람은 30원에 뜨고. [뜨개질 옷에 붙은 꽃 모양 장식을 가리키며] 요거 하나 뜨면 1원 받아 1원. 꽃 하나 떠서 붙이거든. 이 꽃을 하나하나 떼가지고 붙여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하나 뜨면 1원이었어. 1원[뜨개 옷에 있는 2중 꽃잎을 가리키면서].

면담자: 애가 1원. 야 이거 얼마나 이거?

구술자: 그렇게 살았어.

면담자: 잠깐 꽃이 몇 개냐? 몇 개인지?

구술자: 내가 너무 추억이 아까워 실이 남아가지고 뒀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버리는 거야.

면담자: 그러면 그 뜨개질 공장은 어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뜨개질 조장을 하셨다는 건 뜨개질을 맡긴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술자: 회사는 동인천에.

면담자: 동인천에 있었어요?

구술자: 지금 뭐야 그 신포동. 신포동 가니까 가정집인데 외국에서 오는 실을 받아가지고 조장들 나눠주면, 우리들이 거기 가 배워. 뜰 줄 아니까는.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이 꽃을 이렇게 떠라. 그 옷을 만들어 줘. 그러면 그걸 가져가지.

면담자: 샘플로 주는구나.

구술자: 내가 동네 아줌마들이 불러. 입고 나가면 다 예쁘대.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배워가지고 뜨는 거야. [현재 입고 있는 빨간 뜨개옷을 가리키며] 이거는 저 기계로 뜬 거 샀어. 이거 너 고마제(고모부) 난닝구 떠준거고. 너 고마제 이거 입을 때가 허리 27입을 때야. 죽어서 내가 추억이 남아 가지고.

면담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상한 게 없이 보관을 잘하셨어요?

구술자: 이런 거는 벌레 안 먹지.

면담자: 옷은 다 벌레 먹을 것 같은데 하나도 구멍 뚫린 데가 없어요. 원래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러나?

구술자: 아이고, 이거 30년 넘어 40년이 다 됐어.

면담자: 그러게요.

구술자: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내가 입는데. 풀여가(풀 먹여서).

면담자: 그래서 풀이 되어 있구나.

구술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려놨잖아. 이거 입고 나가면 다 예쁘대.

면담자: 예쁠 것 같아요. 한번 입어 보실까요? 한번 지금 입어 보실까요?

구술자: 일할 게 없어 가지고 이걸 했다니까[하얀색으로 된 뜨개 옷을 가리키면서]

면담자: 일할 거 없을 때.

구술자: 우리 아저씨도 이런 거 하나 떠준 게 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없어서.

면담자: [뜨개옷을 입은 구술자를 보면서] 어우~ 이쁘다.

구술자: 다 이쁘다 그래.

면담자: 살도 되게 하얘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구술자: 이쁘다 그래. 이거 한철 입어. 이것도 꽃이 두 개.

면담자: 이중으로 뜬 거네. 그쵸?

구술자: 응?

면담자: 두 겹이에요. 꽃이.

구술자: 그렇지. 두 겹. 이거 꽃을 떼가 요거 하나 떼가지고 붙이는 거야. 이게 딱 하나 하나 하나 떼야 돼. 이거는 이거 붙여 올라가고. 이런 꽃은 다 하나씩 떼가지고 붙여야 돼. 이거 한 개에 1원.

면담자: 이 꽃 하나에 1원.

구술자: 안동 갈 때도 기차 칸에서 노상 이걸 뜨고 땡겼어.

면담자: 안동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구술자: 고향 다니는 거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야지.

면담자: 근데 기차를 타고 가셨어요? 기차 타고 갔어요. 서울역 가서?

구술자: 그렇지.

면담자: 근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잖아요?

구술자: 그때 터미널도 없었고 전철도 없었어.

면담자: 아! 그래서.

구술자: [구술자님이 뜬 뜨개옷을 가리키며] 입어 보라고? 해 보자! 앞뒤가 있는데. 이거 입고 나가면 아줌마들이 다 이쁘대. 여름 한철 입느니라.

면담자: 너무 잘 어울리세요.

구술자: 하얀 거 받쳐 입으면 예뻐. 이거 가지고 안동 가면 이거 몇 개나 뜬다고 노상 밖에



구경도 안하고 이것만 뜨고 앉았고. 지금 생각해 바보로 살았어. 내가

면담자: 에이, 그렇지 않아요.

구술자: 아냐. 바보야. 절대 그래 살지 마.

12. 학익동 동네 친구들과 지금까지 유지하는 친목회 모임 (00:45:51~00:47:43)

면담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아니면 동네 어머님들이랑 같이 야유회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구술자: [큰 소리고 강조하면서] 왜! 놀러 많이 다녔지.

면담자: 많이 다니셨죠?

구술자: 내가 아주 관광은 진짜 많이 갔어. 친목회 30년 해가지고 관광을 다녀서 후회는 없어 지금. 안 간데 없이 다 갔다 왔어.

면담자: 다 그러셨어요? 그럼 옛날 학익동 마을에 살았던 분들 만나시는 분은 따로 없으세요?

구술자: 학익동 살 때 만난 사람들은 만나요. 친목끼리 해가지고. 한 회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정이 두텁지. 두터워. 여기 와 가지고 사귀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더 정이 있어. 오늘도 만나서 점심 먹고 왔어.

면담자: 그분들은 다 어디 사세요?

구술자: 그 양반 하면 송도도 있고 또 용현동도 있고 학익동도 있고.

면담자: 오늘 나갔다 오신 거예요?

구술자: 예. 오늘 내가 점심 먹고 들어왔대요.

면담자: 어디 가서 드셨어요?

구술자: 여기 구월동. 점심 먹고 와서 목욕하고 있는데 애가 전화가 왔더라고.

면담자: 세상에나. 어머니 되게 멋지게 사시는데요?

구술자: 멋지게 사는 것보다 친구들이 많아요.

면담자: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지원자 선생님을 바라보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구술자: 아이고 이제 그럼 되는 거요? 참외 좀 깎아라. 나는 그런 고생한 거 얘기하면 차로 한 대도 다 못해.

면담자: 아직 안 끝 거고요. 나중에 갈 때 끄겠습니다¹⁸⁾.

구술자: 야! 기숙아! 상 갖다놔라.

면담자: 아이고. 언니[최기숙 구술자를 바라보며] 배도 안 좋은데 어떡해¹⁹⁾.

최기숙: 괜찮아. 약 먹어가지고.

18) 녹음을 끄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

19) 당시 최기숙 구술자님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음



13. 남편의 술자리, 옛 서창동 땅에 대한 기억, 집을 넓히기 위해 힘들게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00:45:51~00:57:38)

지원자: 어머니! 그럼 아버님은 집에서 약주 같은 거 좀 드셨어요?

구술자: [상 펴는 소리가 들리면서] 집에서는 안 먹었지.

지원자: 그럼 동네에서 드셨어요?

구술자: 그럼요. 나가서는 먹어도 집에서는 안 먹었어요.

지원자: 그럼 구멍가게 같은데 이런데에서 드셨어요?

구술자: 구멍가게는 아니고 당구장 같은데.

지원자: 그럼 그 근처에 당구장 같은 게 있었어요?

[48:20 ~ 48:50 구술자님이 조카인 최기숙님과 함께 참외도 깎고 토마토도 챙겨주시느라 어수선한 상태가 녹음이 됨]

지원자: 예전에 일 끝나고 모이시면. 약주도 한 잔 하시고, 회포도 풀고 그러셨나요?

구술자: 그래야돼. 일하기 얼마나 힘든데. 모여가지고 회식하고 그랬지. 집에서는 안 먹고 일하는 친구 동료들이랑 오다가 술 한잔 먹고 오고.

지원자: 그러면은 일 끝나고 오시는 길에 옛날에는 구멍 가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술집이 따로 있었나요?

구술자: 옛날에 뭐 구멍가게 그런 데 앉아 먹지. 옛날에 이런 데(지금 같은 술집) 없었어.

지원자: 그러니까요. 보통 거기는 뭐 드시고 오셨대요?

구술자: 그때 안주가 뭐 있어? 참 남자들 불쌍하지. 뭐 주로 막걸리에다가 김치지. 요새같이 고기는. 요새야 얼마나 좋아? 먹을 게 많고.

지원자: 그때 막걸리 한 병 사면 김치 그런 거는 그냥 서비스로?

구술자: 김치 한 가지만 끝일 뿐이었죠. 그때 뭐 부침개 이런 거 안 팔았어요. 고기도 없어. 그때 세월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 발전이 돼서 그렇죠. 지금 올해 몇 살이래요?

지원자: 저는 지금 범띠라서요. 52.

구술자: 아! 52면 진짜 그 시절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지. 재(최기숙씨를 가리키며)는 여기 와서 태어났는데.

지원자: 저희 엄마도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구요.

구술자: 진짜 여기 서창동은 알지도 못했어. 여기 우리 때는 허허벌판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도시가 돼 가지고. 여기에 그전에는 소금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부지런한 사람 달밤에 가서 이렇게 동아(말뚝) 막아서 밭 재(일귀) 먹고 이랬대요. 그래서 나라에서 책임져라 해가 불화를 줬대. 한 집이 130억까지 받았어. 130억. 그 할때, 할아버지 내외가 부지런해가지고 달밤에도



나가가지고 밭을 만들어 뭐 배추 송거(심고) 먹고 무도 송구고(심고) 한 건데 이 땅 가질 사람 가져라 그래가지고 싸게 불하를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집(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이 들어서는데 바람에 많은 집이 그냥 돈자루에 올라지고. 이 동네 사람은 다 땅 부자들이야! 객지 들어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여기서 돈 받은 사람은 땅 부자야. 한 집에 130억을 받았어.

지원자: 맞아요. 저희 이모부네도 논현동에 사시거든요? 근데 저희 이모부는 한국화학을 다니셨었어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한국화학 다니고 새벽에 일찍 4시나 3시에 일어나 가지고 밭 한 번 돌고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면 또 밭 한 바퀴 돌고. 그때 당시 직업이 두 개였어요. 농사하고 회사하고. 그래 갖고 거기서 보상 받을 때 땅이 너무 커 가지고 쪼개서 팔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100억 넘게 받았어. 되게 오래됐어요.

구술자: 맞아요. 여기 사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내 땅 만들어 가지고 엄청 부자 된 사람이 많아요. 여기 서창동 사람 돈부자야! 땅을 팔아가 돈을 엄청 받은 한 집은 외동 아들이 가게를 차려 달라고 그랬대.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현찰을 보니까 아까워 가지고 '젊은 놈이 뭐 가게를 하려고하냐? 그냥 농사짓고 살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때 나가서 연락이 없어. 죽었겠지 뭐. 그때 나가 소식이 없대요.

지원자: 그러면 아버님은 퇴근하시면서 친구분들이랑 막걸리 한잔 하시고?

구술자: 막걸리 한잔하고, 당구치고!

지원자: 그 동네 당구 치는 데, 당구장이 따로 있었어요?

구술자: 그때 동양화학 앞에. 동양화학 바로 그 앞에 사무실 옆에 당구장에 있었어. [상 위에 올려놓은 썰어진 토마토를 가리키면서] 설탕 좀 뿌려줄까?

지원자: 아니요. 괜찮아요!

구술자: 짬 해놓은 것도 있는데.

지원자: 그러면은 거기 주변에서 당구하고 막걸리하고 또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구술자: 딱 거는 없었어요. 막걸리 팔고 뭐 구멍가게에 주로 쌀하고 막걸리고 연탄이고, 구멍가게라고 보면 돼.

지원자: 어머니 그때 자녀분들은 용돈을 얼마씩 줬어요?

구술자: 용돈이 1원도 없지. 그때 우리 아들 그때 용돈 없었어요.

지원자: 그래도 뭐 구멍가게 가서 하다못해.

구술자: 그때 이런[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사탕 하나에 1원이었어. 1원. 10원 주면 10개 줬어. 보리 사탕(사탕)이 이만큼 했어.

지원자: 보리 사탕?

구술자: 보리. 보리로 만든 거. 요만큼 해. 그거 한 개 1원이었어.

지원자: 이만하면 엄청 큰 거네.

구술자: 1원, 2원 주면은 그게 애들 하루 용돈이 값(용돈)이었어. 1원, 2원이요.



지원자: 제가 그걸 왜 여쭙보냐면, 저희 엄마가 출근하실 때 하루에 100원씩 주고 가셨거든요.

구술자: 100원이면 크게 받았구만.

지원자: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때예요. 어머님네 자녀분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구술자: 아! 맞아. 그렇지. 우리 아들이 이제 61살 지나서 10년 넘게 지났으니까(차이가 나니까) 모르지. 우리 애들은 용돈은 이름도 몰라.

지원자: 저희 엄마가 출근하시면서 친구들 뭐 먹을 때 구경하지 말고 너도 뭐 하나 더 사 먹으라고 100원씩 주고 출근하셨어요.

구술자: 100원이면 큰 돈이지. 나도 바보로 살았어요. [집을 사려고 아등바등했던 그 시절이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왜 집을 그렇게 샀냐고!

지원자: 아니예요. 어머니!

구술자: 집을 왜 그렇게 샀냐고!! 집을 몇 개 샀냐고!

지원자: 그래도 월세 받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지.

구술자: 집을 현찰로 산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만 되면은 집 어디 냐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은행 갔다 제피고(잡히고) 대출받아 사요. 그러면 이 대출 갚다 보면 집값이 다락같이(엄청 많이) 올라가더구먼.

지원자: 그러니까 어머님이 신여성인 거야. 그때 신식인 거라고요.

구술자: 몰라!

지원자: 왜냐하면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래도 여기 동양화학 카바이트 공장에서 아버님이 버신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그걸로 사면서 대출받는다든 거는 그때 당시로는 어머님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앞서 가신 거야.

구술자: 아니 우리 저기 130만 원 주고 산 집이 있어. 대출 50만 원 받았습디다. 경기은행 50만 원 대출받은 거 쥐고 난 거지. 현찰을 줬거든. 그 50만 원 우리가 다 안고 줬는데 그 집을 다 갚고 나서 또 은행 짬혀 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집 어디 냐다 그러면 또 사고, 세 놓고. 나도 그때 좀 머리가 좀 좋았나 봐. 돌아갔나 봐.

지원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머님처럼 앞서가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 왜냐하면 다 힘들게 사서 가지고.

구술자: 빈손으로, 맨 주먹으로 올라와가지고 집을 5채나 샀다니니까!

면담자: 그러니까요!

구술자: 그래 지금 후회스러워 내가.

면담자: 왜요?

구술자: 그때는 옷 한 가지 사면 7년, 8년을 입었어요.



지원자: 저도 오래 입어요. 어머니.

면담자: 그래서요?

구술자: 티 하나에 500원짜리면 큰 돈이야. 그때 500원인가 50원인가 주고 샀어. 까만 거 그 거 사가지고 저녁에 빨아가지고 연탄불 가까운데 놓고 마르면 아침에 입고 나가고. 신 한 켤레 사서 신으면 7년, 8년을 신었어. 나이롱 신발을. 뒤척(뒤축)이 다르면(닿으면) 뒤척을 또 이렇게 톱으로 잘라내고 신고 그렇게 바보로 살았어. 내 인생 젊었을 때 옷 좀 이쁘게 입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뭘 그렇게 애들 자식 못 산다고 애들 대학 구한다고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이제 좀 있어서 슬려고 하니까 다리가 아파서 어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지 말아. 젊었을 때 이쁜 거 입고 예쁜 거 먹고, 땀길 때 땀기고 그래 살아야지.

지원자: 그래도 자녀분들 다 잘 되셨잖아요?

구술자: 애들은 내보다 더 부자로 살지.

지원자: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사셨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다 그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구술자: 학교를 합격시켰으니까. 참외가 달다 먹어라. 설탕이 없어 맛없나?

지원자: 아닙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구술자: [토마토를 가리키며] 영각이가 어제 한 박스 사 왔어.

면담자: 너무 맛있어요.

구술자: 영각이가 만원 줬다고 한 박스를 내더라. 맛있어. 싱싱한 거 사 왔어.

14. 인터뷰 소회 및 아동 식혜와 나누는 삶에 대한 이야기 (00:57:39~01:07:56)

면담자: 어머니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 오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니까?

구술자: 좋지 뭐. 젊은 사람이 묻고 대답하니까 기분 좋지. 거짓말도 없이 나는 내가 겪은 그대로 이야기했지.

면담자: 그렇죠? 기억나시는 대로.

구술자: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살아온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많이 없어서 창피하다고? 그런데 뭐 창피해? 인생살이 다 역사인데. 나는 옛날이야기를 역사로 생각하고 얘기해요. 역사지 뭐. 토마토 맛있나? 더 많이 먹어.

면담자: 네. 잘 먹겠습니다.

구술자: 네가 온다고 해서 오늘 시장 가 사 왔어. 밥은 안 먹을 거고.

면담자: 네.

[구술자가 최기숙씨에게 냉장고에서 토마토 주스를 꺼내오라고 해서 최기숙씨가 꺼내오면서



말씀하시기를]

최기숙: 식혜라고 있어. 안동 식혜. 우리 고모가 굉장히 잘 하거든.

면담자: 안동식혜?

최기숙: 빨간 식혜.

구술자: [토마토를 끊여서 만들어 놓은 걸죽한 잼을 담으라고 하시면서] 더 해라(더 담아 줘라).

최기숙: 아니 먹고 더 먹으라고.

구술자: 맛이나 보소.

면담자: 이게 뭐예요?

구술자: 이거? 잼! 꿀 여가지고(넣어서) 했어. 꿀.

면담자: 꿀? 아유! 귀한거네요.

구술자: 이빨에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잘라서 꿀 여가지고 삶아 가지고. 쪽 마셔봐. 어때?

최기숙: 맛있네.

구술자: 나 이래가(이렇게) 먹는 거야.

면담자: 그러셔야겠다.

구술자: 이제 내 인생 살아.

면담자: 잠깐 칼로 이거 좀 썰어드려야지. 너무 크죠? 참외가.

구술자: 아니야. 아니야. 애 잘 썰었네. 나는 이렇게 써는데 뭐. 나는 이거 한 잔씩 마신다.

지원자: 선생님이 고모분 생각해서 이렇게 좀 잘게 썬 것 같아요.

구술자: 맞아.

면담자: 맛있는데요? 근데 고모님이 안동식혜를 잘 하신다고요?

구술자: 안동식혜 잘하지. 우린 잘 먹지.

면담자: 안동식혜가 뭐예요?

최기숙: 우리 어릴 적 추억의 음식!

면담자: 한 숟갈만 더 먹을게요.

구술자: [최기숙씨가 토마토 잼을 적게 떠서 주는 것을 보고] 한껏 떠드리라니까! 오면 드린다고 해 놓은 거야!

면담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하하.

최기숙: 안동에서만 있는 식혜.

구술자: 꿀도 이만한 거. 4만 5천원 주고 샀어.

면담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안동식혜는?

구술자: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산다니까.

최기숙: 아니. 그거 안동식혜.



구술자: 거 안동식혜는 감주하고 똑같아. 여기는 식혜라 그러데? 우리 안동 감주라고 그래.

면담자: 근데 왜 빨개요?

구술자: 식혜를 하는데 우리는 다리질 안 해.

면담자: 다리질 않는다?

구술자: 밥 해가지고 무를 채를 썰어요. 고춧가루를 채로 쳐가지고 무에 고춧가루를 빨갱게 묻혀. 거기에다가 밥을 뜨시게 해가지고 섞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면담자: 옛기름 물?

구술자: 그 옛질금 물 부으면은 한 3일만 되면 맛이 기가 막히지. 그치? 우리 경상도 사람만 먹어.

면담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구술자: 여기 사람들 안 먹지. 그거 양반 음식이야.

지원자: 식혜를 집에서 하면 식혜를 한 번 끓이잖아요? 근데 안동식혜는 안 끓여요?

구술자: 안 끓여. 그냥 무하고 그다음 배도 넣고. 땅콩도 넣고. 손님 왔을 때 잣을 위에 살짝 뿌려주는 거야. 맛있어요. 너(최기숙씨)도 잘 먹나?

면담자: 구술자님이 한번 해 주시면.

최기숙: 겨울에 그거를 이렇게 바깥에 넣어서 항아리에 넣으면 살얼음이 끼니까.

구술자: 그거 감기 툇이야. 그때 우리 시골은 그제 감기 약이야. 감기 걸렸을때 그거 한 대접 먹고 나면 막 감기가 툇 떨어져. 매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면담자: 숟가락을 가져가서 대접에 퍼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먹어. 개는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지원자: 왜냐하면 무가 있고.

구술자: 무가 또 시원하잖아요.

최기숙: 땅콩도 있고.

구술자: 땅콩은 고소하고.

면담자: 약간 나박김치 같은가? 달달한 나박김치?

구술자: 안동식혜 하는 거 봤잖아. 그거 양반 음식이야. 안동밖에 안 먹어. 안동 사람밖에 안 해봐서 다른 사람들은 할 줄 몰라.

지원자: 저도 많이 듣기는 해봤는데, 먹어보지를 못해서.

구술자: 바깥 집(옆집 남자)이 안동 사람인데 여자는 가평 여자야. 그래 식혜를 담을 줄은 몰라. 안동 사람은 식혜 먹고 싶어하지. 그래서 내가 담을 때마다 같이 담아가지고 막 이런 김치통을 하나 퍼주면 좋아하지. '아집(아주머니)가 담은 건 왜 이렇게 맛있나?'고 그랬어. [토마토 잼을 가리키며] 이거 맛있죠?

면담자: 맛있네요.



구술자: 그래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놨어.

면담자: 저희가 와서 대접을 받으니까 죄송하네요.

구술자: 아이고 뭐 이리 놀러 와줘서 고맙지.

지원자: 저희 때문에 오늘 귀찮으시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더 먹지 왜?

최기숙: 귀찮지 않았냐고 하는데?

구술자: 아이고 귀찮지 않아.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반갑지. 안 그래도 우리 또래가 우리 집에 에어컨 고장 나서 안 온다. 여기 저녁도 먹고 가고, 뭐 이런 거(과일) 다 먹고 땡기고면서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해.

면담자: 사랑방이시네요.

구술자: 재미있게 살아요. 우리 나이에 사람이 와서 대화를 안 하면 치매 걸려. 여기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여기(아파트 같은 층) 세 명 여자들 다 문 달아 놓고 오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다 아파가지고 병원 돈 다 갖다 주는데. 병원한테 주는 거로 이런 거 사다 같이 노나(나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면담자: 고모 닮았네. 이분(최기숙)이 그렇게 다 나눠주세요.

구술자: 우리 식구 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면담자: 동생도 그러시고.

구술자: 아버지 엄마들 다 남 쥐가 먹였어. 배웠잖아. 우리가.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더라고. 인심이 남아 그래도. 그래서 참 잘했다고. 뭐 몇 푼 들어? 뭐 병원 가서 한 번 문고리 집다 놔도 10만 원이야.

면담자: 뭘 말인가 해서 한참 생각했어요. 문고리를 쥐었다 놔는데 왜 10만원이지?

구술자: [다 같이 크게 웃으며] 하! 하! 하!

지원자: 병원 문고리 잡는다는게 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니까.

구술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주사나 한 대 맞고 약 짓고 해봐라. 돈 1만원이 휘딱 날아간 다니깐.

면담자: 맞습니다.

구술자: 병원 안 가는 날 돈 버는 거야.

면담자: 요즘 제일 아픈 데는 무릎이예요?

구술자: 딱 병은 없는데 무릎이 연골이 닳아 가지고.

면담자: 연골이 닳아서.

구술자: 연골은 재생이 안 된대

면담자: 왜 이렇게 무릎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구술자: 모르겠어. 연골 주사를 젊을 때 맞으면 좋대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모르고, 젊을 때 진



작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몰랐어. 평생 다리가 그래 선할(튼튼한) 줄 알았지. 나이가 먹으니까 연골이 닳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다 닳고 없어. 여 뼈끼리 한대 붙었어요.

면담자: 아이고, 어떻게.

구술자: 좀 걸으면 이렇게 뼈끼리 부딪치니까 아픈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다니지를 못해.

면담자: 근데 어떻게 구월동까지 나갔다 오셨어요?

구술자: 어! 그런 데는 가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요 앞에 차 있잖아. 버스.

지원자: 양반다리 하지 마시고요. 다리 쪽 뺏으셔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반 다리하면 더 아파.

구술자: 그리고 글로코타가 뭐가.

면담자: 아! 글루코사민?

구술자: 글로코탄인가? 그거 먹고 나니까 다리가 오그렸다 펴지대. 낫지는 않아도 부드러워.

면담자: 아! 효과가 있네요.

구술자: 그 하루에 두 알씩 먹지. 이제 한 알씩 먹어.

면담자: 근데 예전에 동네가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그렇게 많이 멀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왜? 나 귀먹었다고 나라에서 돈 타 먹어.

면담자: 그래요? 근데 되게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구술자: 이 정도는 알아듣는데. 한 달에 6만 원씩 타 먹어.

면담자: 와! 훌륭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네. 제 시어머니도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구술자: 나라에서 그냥 해주는데.

면담자: 그러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술자: 나도 돈 10원도 안 들고 그랬어요.

지원자: 그럼 보청기는 안 하세요?

구술자: 했어요. 보청기가 100 얼마 30이나(보청기 금액) 해놓고, 한 번도 안 찾어. 그냥 이렇게 대화하니까 어디가 뭐 특이한 얘기가 없으니까.

면담자: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 쓸 필요가 없으셨군요. 근데 일단 필요할지 모르니까 해놓으셨나 보네요.

구술자: 아직 한 번도 안 찾어. 가져와서. 내가 소개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5명 타 먹어.

면담자: 와! 동네 소식통에 사랑방에. 최기숙 구술자님도 왜 저러고 사시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고모를 닮아 다른 사람을 잘 챙긴다는 의미).

구술자: 6만 원. 그것도 큰 돈이야. 그래도 텔레비는 좀 올려야 듣지 잘 못 들어. 이 대화는 알아듣는데. 이비인후과 원장이 귀가 먹었겠다 도장 놔줬지. 이것도 원장 도장 맞고, 구청장



도장 맞고, 또 LH 사는 확인서, 또 집문서도 가야되고, 계약서도 가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면담자: 그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구술자: 해야지. 절차 밟아 가지고.

면담자: 대단하시다. 보통 자녀들이 해주잖아요?

구술자: 우리 아들도 몰라. 난 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면담자: 짱!

구술자: 너 오빠들 내가 병원 다니는 것도 모른다. 어마이 건강한 줄 안다.

최기숙: 말을 해야지. 고모.

구술자: 뭐 말을 해! 아들이 의사도 아닌데. 걱정만 하지. 애들한테 아프다고? 너 오빠 사는 거 재미없게 뭘 얘기하나? 아픈 건 내 몫이지. 내 몫이야. 내 몫. 아파 먹는 약은 감춰놓고 먹고, 저것들이 사주는 거 내놓고 먹는다.

15. 슬기롭게 지냈던 결혼 생활, 친척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줬던 구술자의 시간과 노력 (01:07:57~01:21:34)

면담자: 어머니 그냥 옛날 생각나서 좀 속상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랑 살면서 그 마을에서 살면서 좋았던 기억 있으세요?

구술자: 시집 안 갔어? 갔어?

면담자: 갔어요.

구술자: 시집 가서 살아보니 요새 세월은 그렇지. 그때 세월엔 남자들은 맨날 이거야[손을 위로 들어올리면서]. 우리들이 맨날 존중하고 살아야지. 요새는 뭐 맞붙어서 말이라도 하지만 우리는 신랑한테 대거리 한 번 못해.

면담자: 아! 못 하셨구나.

구술자: 애네 아버지도. 애네 엄마도 그랬고. 신랑을 하늘같이 받들었지.

면담자: 그러셨어요? 잘해주거나 이런 건.

구술자: 그러니까 집이 조용했지. 여자가 갈구면 싸움이 되는데 안 갈구니까. 혼자 손바닥 흔 들어서 소리 나? 마주쳐야 소리 나지.

면담자: 이거[구술자가 했던 손목을 꺾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구술자: 혼자하면 소리 안 나요. 그게 마주쳐야 소리 나는데. 뭐 애들 고모부가 뭐 어쩔다고 그러면 그 좀 아닌데도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 그럼 끝나버려. 그거 토 달면 안 돼.

면담자: 슬기로우셨네요. 지혜로우셨어.



구술자: 지혜롭게 살았지. 애네 엄마도 지혜로웠어. 애네 엄마 그 당시에 중학 나왔어. 똑똑 했어요.

면담자: 여기 최기숙 구술자님의 어머니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셔 가지고 얘기를 모르니까.

구술자: 애들은 모르지. 엄마 얼굴은 아나? 기억나나?

최기숙: 아! 사진으로.

구술자: 니 몇 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나?

최기숙: 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은 아니고, 1학년...

구술자: 그때 모르지. 애 언니가 오진살²⁰⁾ 2월 생일이래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마이가 죽은 거야. 5남매 놔두고. 나도 중간에서 오빠도 불쌍하고 애들도 불쌍해가지고. 은주가 나보고 그런다. '고모 보면 그렇게 우리들이 어지러놓고 해도 눈 하나 안 붙여 먹잖아²¹⁾!' 눈 부시면 뭐 해²²⁾ 그거 내가 불쌍해서.

최기숙: 맞아. 뭐라 혼내지 않았어.

면담자: 그러니까요. 혼내지 않고 그냥 다 해주셨구나.

구술자: 눈 한번 이래 이래 안 했다고. 너 언니가 나보고 그런 거야. 내 자식 같으면 때리기도 하고 하지만 조카인데, 불쌍한데. 어마이 없는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애들이.

면담자: 불쌍해서 그랬구나.

구술자: 요새 애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딸이 없거든. 아들만 형제야. 이 애들이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면담자: 그러겠네요.

구술자: '고모~, 고모~',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면담자: 저기 금산 고모님도 한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최기숙: 작은 고모.

구술자: 아~ 개들도 잘해.

면담자: 그러니까요. 제가 고모님이 있으시다고 들어가지고.

구술자: 고모 개도 잘한다. 개도 애들한테 아주 잘해요.

면담자: 그분은 그러면 계속 그냥 금산에 사신 거예요?

구술자: 우리는 인정 빼면 시체지 뭐!

최기숙: 여기 인천에. 고모도 아가씨 때 여기 있다가 금산으로 시집을 간 거야.

면담자: 아~ 그럼 다 같이 올라와 있던 거네요. 오빠가 다 부른 거네. 어떻게 보면?

최기숙: 우리가 인천 살 때 고모도 인천에 와서, 고모는 어디 다녔었어?

구술자: 고모는 한일 방직.

20) 정월의 초에 생일이 든 사람, 경북 방언

21) '눈살 한 번 안 찡그리고'의 의미

22) '눈 흘기면'의 의미



면담자: 그게 흥한 방식에서 한일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최기숙: 거기 다니다가.

구술자: 그 한일방식이 그때 알아줬어요. 웬만하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최기숙: 그래서 학익동 집에 우리 식구하고 고모하고 마산 작은아버지하고 큰 집에 큰오빠 준성이 오빠 해서 이렇게 다 같이.

구술자: 같이 살았지.

면담자: 인하대 쪽에 있는 그 집?

최기숙: 말고. 그러면 어디 집이지? 준영이네 길 건너편 그 집인가?

구술자: 지금 너 준석이 있을 때 너네 어디 살았는데? 용현동 거기 살았잖아?

최기숙: 용현동 집에? 용현동 집에 오빠들 없었는데.

구술자: 오빠하고 살 때 거기서 살았어. 기연이도 거기 있을 때 왔잖아.

최기숙: 그러면 나 지리실[어린 시절 엄마가 몸이 안 좋아 시골에 잠시 맡겨졌음] 갔을 때 오빠들이 다 왔었나? 나는 없었어.

구술자: 그때 너는 모르지. 애네 엄마도 고생 많이 했어. 시누 데리고 있었지. 또 조카도 데리고 있었지. 나는 말도 못하고. 우리가 시골에 있다가 여기 인천에 내가 혼자만 올랐단 말이야. 시골 사람들은 도시에 와서 살면 가만 둘러 있어도 돈이 막 날아 들어오는 줄 알아.

면담자: 그렇죠.

구술자: 가만 둘러 있으면 돈이 그냥 막 날아도는 줄 알아. 사실 시골보다 더 고생하는데. 시골은 내 땅에서 순 고구마, 고추도 그냥 따 먹잖아. 여기는 다 사야 되잖아요. 시골에서 '사람이 인천에 와 있다.' 이러면 애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만 마치면 다 우리 집에 올라 보내는 거야. 그래 내가 일곱을 데리고 있었어. 일곱 장정들을. 이 근처에 공장이 있으니까 와서 대우전자도 여어줬고(소개하고), 또 카바이트 공장도 여어주고(소개하고), 동양화학도 여어주고(소개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땐 사람을 모집할 때니까. 우리 집에 올른기면(올라오면) 다 취직을 시켰어요. 장장 일곱을 데리고 있었어. 친조카, 우리 맏동생 아들 둘. 시누가 4명인데, 또 큰 시누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또 옆에 시누가 샘을 하네. '왜 언니네 아들 데리고 우리 아들은 왜 안 데리고 있냐'고. 그래서 둘째 시누 아들, 또 셋째네, 또 저 언니네 애들 데리고, 시누네 아들을 한 집 하나씩이라도 4명에다가 또 한 집에는 또 삼형제가 와 있었어. 우리 큰집 조카들이 둘이 와. 어떤 때 아홉이 됐어. 아홉 장장고리(장정). 영각이가 그러니까 나 보고 그러더라. '엄마! 엄마! 그 식구들, 연탄불에 어에 밥을 해 댔노?' 그러잖아!

면담자: 그러니까.

구술자: 정부미 쌀 있잖아. 옛날에 이 집 아는지 모르겠다. 보리쌀 섞인 거. 그걸 한 달에 7말 삶아 냈어. 7말. 큰 말로 7말 삶았어. 장장고리가 얼마나 많아요?

면담자: 50kg가 넘는 거잖아. 말이면?



구술자: 일곱 마리면 얼마야? 그래. 연탄불에다가. 근데 도시락 싸야지 영각이가 어제 그러더라. ‘엄마! 그 시절에 어예 지냈냐?’고. 지도 고등학생이니까 도시락을 점심, 저녁으로 2개 싸야 되잖아요? 또 애(최기숙 구술자)는 엄마가 일찍 죽어 우리 오빠가 새 장가를 갔는데, 이놈의 여자가 못 돼 가지고 애 언니가 머리가 좋은데 학교를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중학만 시켜가지고 공장을 보내려는 거야. 그때 나는 생각에 동생들이 많잖아? 그 애(최기숙 구술자의 언니)를 잘 가르쳐 놔야만 동생들 뒷바라지할 것 같아. 그래서 애 언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잖아. 고등 가려면 학교를 석 달 배워야 되잖아? 우리 아들하고 동창이거든. 그래가지고 애 고모부 같은 사람도 없어. ‘은주야! 은주야! 너 새어마이는 학교를 안 시키려고 한다.’ 중학 나와 공장으로 돌리려고 그래. 공장에서 돈 몇 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애 머리는 좋으니까 인천 여상만 나오면 어디 가 팬대 돌리잖아. 동생들이 넷이나 있는데 애를 잘 가르쳐야만이 동생을 가르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은주보고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 와가지고 석 달 공부해 가지고 인천 여상 가라.’ 그래 내가 애 언니를 공부시키려고 석 달 데리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아들 도시락 2개 우리도 둘째 놈도 도시락 2개. 애는 언니는 한 개 싸고 저녁밥은 누룽지 넣어. 누룽지를 묶어 가지고. 요새는 비닐 종이나 있지. 그때는 도가리 푸대가 있었어. 정부미 푸대가. 거기다가 누룽지를 싸가지고 ‘너는 여자니까는 수돗가 가서 이거 먹고 물 마시면 집에 올 때까지 배 안 고프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애 언니도 고생했어. 그래 애 머리가 얼마나 좋아 인천 여상 딱 들어갔잖아. 3학년 1학기 때 스카우트 해 가지고, 중학교 서무과에 들어가가지고 오늘까지 서무과에 있잖아. 내년엔 정년퇴직인가? 그때 은주가 애 낳으니까 애를 기를 사람이 없네. 내가 또 그 집 애를 10년 길러줬어요.

면담자: 고모를 잊어버릴 수가 없으시겠어요.

구술자: 은혜를 7살 먹도록 길렀지. 지혜를 내가 3살 먹도록 길렀잖아. 두 형제를 10년을 길렀어. 내가 그랬으니까 애들도 내한테 잘하는 수밖에 없어.

면담자: 어머니셨네요.

구술자: 어머니 같지. 뭐 나도 희생을 했지. 애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애들 머리 좋은 걸 가르치고 싶습디다.

면담자: 근데 고모님이 보는 시각이 넓으셨던 것 같아요. 신세대시고.

구술자: 가르쳐야 된다 싶어가.

면담자: 그러니까요.

구술자: 우리 시누네 아들들도 다 머리가 좋은데 농촌에서 중학만 시키면 다 일을 시키려고 그러잖아? 학교를 시키려고 하나요? 그래도 큰 시누네 아들은 고등은 나왔어. 고등 나왔는데 갈 데가 있나? 우리 집에 와 있었어. 인천 대학을 야간대학으로 보냈어요. 계네 올라올 때 비계(베개) 하나 안 가져와요. 우리 집만 믿고 알몸만 올라가지고 그놈 먹이고 그랬는데, 야간 대학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잘해가 장학금을 탔어. 그리고 공부해서 개가 회사 들어가 부장까



지 했어요. 그래도 내한테 ‘외숙모 잘있냐?’고 소리 한마디, 전화 한 통을 안 해.

면담자: 남자들은 좀. 아들들은 좀.

구술자: 우리 큰 시누님이 맨날 그래. 자네 때문에 우리 애들 출세했다고. 그 집 아들 둘을 데려다가 다 부장 자리에 앉혀 놔어.

면담자: 어디 회사 부장자리예요?

구술자: 대우전자. 대우전자에 취직시켰어. 개가 전자과를 나왔나 봐요. 잘 고쳐. 거기서 뽑혀가지고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까지 했어요. 넷째 아들 동현이도 필적이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비서로 있었지. 그 국회의원이 집이 안동인데 딸 이름을 따가지고 선인 여고 지어가지고 여상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부장까지 있었다니까. 지금은 70이 다 됐는데.

면담자: 사촌 조카들이 다 와 있었던 집이 어디였어요?

구술자: 안동이지. 뭐? 아니. 그때 학익동.

면담자: 학익동 어디? 국민주택?

구술자: 국민주택이 있을 때.

면담자: 거기가 터가 좋네요.

구술자: 방 하나에서.

면담자: 모든 사람이 다 성공했는데.

구술자: 방이 이거, 여기서 저 정도 됐어. 안방이.

면담자: 안방.

구술자: 우리 어머니도 와 계셨잖아. 우리 식구 네 명에다가 조카들 일곱에다가, 우리 어머니까지.

면담자: 그 방에서 다 잤어요?

구술자: 한 방에 다 잤지. 방 하나는 세놓고. 그래가지고 잘 때 부채 잠을 자는 거야. 부채 잠을. 아래 목이 따뜻하잖아. 연탄불이니까 발은 안 어브니까²³⁾ 이불만 하나씩. 이불만 두 채가지고 이렇게 덮고. 막 잠 오면 이렇게 둘러자는 거야. 우리는 아기들하고 이쪽에 자고, 어머니하고 우리 조카가 저쪽에 자고. 우리 장조카가 장가를 스물여덟에 갔나? 아홉에 갔나? 장가를 가더니 나보고 그런 거야. ‘아이고 작은 엄마! 우리 때문에 작은 엄마 젊은 시절 희생했다’고. 뭐 너희들 출세했으면 됐지 뭐 작은엄마 뭐가 있어? 장가 가드니만 나보고 청춘을 아깝게 그랬다고. 저들 때문에 그냥 한 방에서 다 잤으니까. 작은엄마 작은아버지 불쌍하다고 그래. 그 지금 78, 77살이야? 범띠. 아! 76살이다.

면담자: 네. 76살 범띠. 저희 친정엄마가 범띠거든요.

구술자: 그래서 그런 시절을 살았어. 내가 시집 가니까 농촌에 살아가 애들 머리는 좋은데 가르치는 일을 안 해 가지고 아깝더라고. 그 애들을 여기 데려 와 가지고 가르치고 싶더라고.

23) ‘발은 안 얼으니까’의 의미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 공부는 저가 하니까.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 높은 인천대학교 장학생으로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 비서로 해가지고 잘 살았고. 그렇게 도와줘도 전화 한 통도. ‘외숙모 어디 사느냐?’ 소리 한마디를 안 해.

면담자: 근데 아들들은 좀 그렇더라구요.

구술자: 나는 저들이 잘만 살아주는 게 고맙고. 또 우리 애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사니까 그걸로 복으로 알고 사는 거야.

면담자: 네. 그럴 수도.

구술자: 내가 영각이 보고 그랬어. ‘엄마가 이만저만 해서 엄마 그때 젊음을 그렇게 틀을 닦아 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산다.’ 그리고 손자 하나는 영문과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했지. 손녀 딸 예은이도 지금 국민학교 선생이잖아. 큰아들 아기 둘, 또 적은 아들 애들도 인천 대학 나와가지고 다 직장 좋은 거 잡아 저 일별이 다 하고 있지. 그러면 되지 인생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면담자: 그럼요.

구술자: 건강하고, 그래서 산다니까.

면담자: 어머니 남은 여생 동안 좋은 것만 보셨으면 좋겠네요.

구술자: 그래 이제 애들도 저희들 다 일별이하고 살고. 건강하니까 최고야. 건강이 돈이야. 돈이 소용없어. 돈 있으면 병원 다 갖다 주는데 뭐. 한 잔 더 먹을래? 이분들 준다고 그래서 한 거야. 저거 더 먹어. 한 잔 더 먹어. 한 잔 더 하소. 우리 조카 딸, 애네도 참 잘해. 뭐 갖다 줘가지가 아니고, 나이 먹으면 말 한마디를 살갑게 해주는 게 고마운 거야. 고모라고 찾아주는 게 고마워. 은주는 뭐 갈비대 나왔나(당시 갈비뼈 골절 상태였어서 물어보신 것임)?

최기숙: 응. 많이 나왔어.

구술자: 그래 고생했다. 참외 다지요?

면담자: 맛있네요.

16.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술자의 이야기, 뜨개질 조장 시절의 에피소드 (01:21:35~01:29:41)

구술자: 참외 되게 싸. 이따만한게 7개 5천 원이야.

면담자: 많이 싸네요.

구술자: 구월 시장에.

면담자: 아! 구월시장!

구술자: 아! 무거워 죽을뻔했다. 가져오는데. 네가 어느 온다 안 했으면 이거 사 오지도 않았어.



최기숙: 무거운 걸 왜 사 왔어?

구술자: 너 준다고 사 왔지.

최기숙: 토마토만 먹으면 되지.

구술자: 토마토는 아이. 참외가 탐스러웠어. 이런 놈이 7개 5천 원이니까 탐이 나가 사 온 거지. 사가지고 옆집에 하나 주고, 하나는 기사 줬어. 버스 기사 줬어.

최기숙: 엄청 고마워했겠네.

구술자: 난 기사 잘 줘. 근데 여자 기사가 3명이야. 535 모래네시장. 처음 나오면 다 줬어. 그러니까 만나면 인사하지. 아까도 남자 기사인데 참외 이따마한거 하나 줬더니 첫 번에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아! 잡수세요. 내가 좋아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받더라고. '아이고 어머니 잡수시려고 사가지고 온 거를 왜 나를 주냐?' 그래 '아니 기사님 주려고 한 개 더 샀어요.' 줬더니 내릴 때 '아이고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면담자: 버스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그 뜨개질 반장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인천까지 뭐 타고 다니셨어요?

구술자: 버스 탔지.

면담자: 몇 번 탔는지 혹시 기억이?

구술자: 그때는 버스가 없었어. 동양화학 앞으로 다니는 송도가는 차. 그때는 봉고차 같았어. 그때는 버스가 봉고차야. 그때 차비가 2원 했는지 3원 했는지 그랬어.

면담자: 그거 타고 동인천까지 가셨던 거예요?

구술자: 그럼. 그거 타고 갔지.

면담자: 그랬구나. 버스가 없었던 시절.

구술자: 없어. 버스 없어. 내 다닐때는. 실을 이렇게 뭉쳐 가지고 가볍기는 가볍지. 실이니까. 이거 이어가지고, 방에 풀어놓고 아줌마들은 일곱, 여덟 명 모아가지고 내가 가서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그때 뜨개질 너무 해가 요새 팔이 아파 가지고 이쪽으로 뭘 하지를 못해.

면담자: 응 맞아.

구술자: 귀신이 붙어가지고, 뭐든 실만 있으면 뜨고 싶어. 그래 밥상보도 떠가지고 붙이고. 아까워 버리지를 못하잖아.

지원자: 어머니 저거 옷 하나 뜨는 거 배우러 가야 되겠다.

구술자: 아이고 17살부터 떴어.

지원자: 저희 엄마가 요즘에 좀 아프신데 이렇게 얇은 거를 저한테 배워서 떠달라는 거예요.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구술자: 어린 처녀 때는 17살 먹으면 시집갈 준비를 하는데, 탄 게 아니고 뜨개질 하는 게야. 신랑도 농촌에 있으면서 중학생 만난다고 책상보 다 떴어요. 쟁반보, 밥상보, 책상보, 이불 넣는데 이불 안에 요래 유리 있는데 그것도 저걸 덮어 놓으면 이빠요. 해바라기 140개를 떠야



만이 이불보가 하나 돼. 그것도 농촌에 일해 가면서 저녁으로 달밤에 뜨고 그랬어요.

면담자: 그게 뜨개질이었어요? 자수였어요?

구술자: 뜨개질도 하고 자수도 하고.

면담자: 자수를 많이 하셨던데.

구술자: 자수도 놓고 했지.

면담자: 저희 엄마가 76세 범띠인데 저희 엄마는 자수를 하셨더라고요.

구술자: 자수는 하지.

면담자: 해바라기 자수.

구술자: 그것도 불란사 실을 사야 돼. 엄마도 우리 시절 똑같으네 뭐.

면담자: 그래서 그 모시 천같이 시원한 천에다가 자수라 해서 그걸 짚 주셨어요.

구술자: 맞아.

면담자: 여름에 시원하게 그거 쓰라고. 이제 꺼낼 때가 됐네.

구술자: 자수는 올 따라 하고. 아주 희한하게 하지. 그 공작새도 놓고. 나도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가고 없어.

지원자: 그래서 저는 숙제가 저거 지금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숙제예요. 산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셔요.

면담자: 이거 마저 먹을까요?

구술자: 다 깔롱(까 놓은거) 다 먹어야 해.

면담자: 먹고 가야지. 이렇게 남기면 안 됩니다.

최기숙: 이것을 다 놔둘 생각 했어? 나는 고모 입고 다니는데, 이걸 고모가 뜯 건지 몰랐는데.

구술자: 야! 내가 뜨개질 조장하는 사람인데.

최기숙: 근데 이거 고모부가 입으셨던 것도 나도 알았네. 고모부 말랐었네?

구술자: 너 고모부 27 입을 때야. 허리 그때 이걸 떠가지고.

면담자: 이게 고모부가 입었던 거예요.?

구술자: 내가 떠가지고 우리 신랑 걸 이걸 입었다니까. 허리 27 입을 때.

최기숙: 27. 키도 크시고.

구술자: 내가 안 그래도 옷에 모의 적삼 속에 받쳐 입잖아.

최기숙: 근데 어떻게 옛날식이 좋긴 하나? 어찌면 이렇게 빨고 했는데도 상하지도 않고. 옛날식이 좋아.

지원자: 보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구술자: 원래 이것도 우리나라는 없고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떠주고 시공 받아. 별거 다 떴지 뭐.



최기숙: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구술자: 가방도 뜨고 별거 다 했다니까.

면담자: 가방도 뜨시고?

구술자: 별 거 다 했어.

면담자: 겨울에 조끼 같은 것도 많이 떠주고 그러잖아요?

구술자: 조끼도 뜨고. 내가 처녀 때는 양발 떠 있었잖아(신었잖아). 그때는 정말 명 갈아가지고, 명을 찾아가지고.

면담자: 저건 다 코바늘이죠?

구술자: 코바늘.

면담자: 이게 동인천에 갔다 주면 어디로 가서 팔리는지는 알고 계세요?

구술자: 모르지. 그 집에 갔다 주면 그 집에서는 해외로 보냈단니까. 실이 해외에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일 시켜가지고 시공품 가지고 가고 그랬어. 배로도 다니고요.

면담자: 그냥 어디로 갔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구술자: 우리나라 이런 거 없었어요.

최기숙: 그 나라에서 하면은 품이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술자: 너 고마제(고모부) 85kg까지 나갔잖아. 그 옷도리 하나 떠주면 멋있었는데, 딱 한 번 입고 세상 뒀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가지고 있어. 애리 딱 달고 저거 입고 사진 찍은 사진이 예쁘더라.

최기숙: 색깔이 보면 선명해서 그래. 짙한 색깔들.

구술자: 사진 찍은 게 기가 막히게 예뻐.

면담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최기숙: 내가 앨범을 찾으려니까 못찾겠어서.

면담자: 그러게요. 사진이 있으면 좋을텐데.

지원자: 어머니 앨범은 어디에 있어요?

구술자: 거기 깊이 있을 텐데.

최기숙: 그러니까. 내가 아까 대충 봤는데 못 찾겠더라구.

[최기숙님과 정지선이 창고방에 들어가 앨범을 찾고 있음]

지원자: 그럼 옛날 아버님이 동양화학에서 찍으신 사진도 있으실 거고, 학익동 길거리에도 좀 찍으셨을테고.

구술자: 내가 가야 한다. 내가 내야지. 보자. 기숙아 이리 나오라. 그래도 내가 찾아야지.

면담자: [지원하신 선생님께 창고방 정리된 모습을 촬영 요청하며] 선생님! 여기 이렇게 박스 박스마다 글씨가 써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글씨를 다 읽으시더라고요. 독학하셨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시네요.



[1:28:25~01:29:35 앨범 찾는 소리가 들림]

구술자: [찾은 앨범과 사진 꾸러미를 내보이시면서] 앨범 구경하소.

면담자: 네! 감사합니다.

17. 앨범에 들어있는 사진에 대한 설명 (01:29:42~01:47:24)

[이때부터 사진 하나 하나 보면서 어떤 사진인지 묻는 상황이 녹음되었음]

면담자: 이거 태현이 같아요. 언니! 애 태현이 아니에요?

구술자: 아니야. 우리 손자. 30살 먹었어.

최기숙: 고모, 아까 참외 그거 한 개거든? 한 개야. 너무 많아서 내가 잘라 갖고 냉장고에 넣어.

구술자: 더 먹게 내놔.

최기숙: 아 배불러.

구술자: 목 마르니께.

최기숙: 반찬 통에 거기 내가 해서 넣어놔어. 이따가 드세요.

구술자: 이거 우리 아들 결혼한 사진!

면담자: 잘 생겼네. 잘생겼어요.

구술자: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인물이 들었어. 이거 우리 아들 대학교 시킬 때. 우리 애들이 청춘 다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버리고 놔 놔어.

면담자: 여기 어머니 어디 계세요?

구술자: 내가 여기 있잖아. 이게 어머니.

면담자: 아버님은?

구술자: 아버님 여기 있잖아.

면담자: 아들 말고 아버님

구술자: 그래 우리 신랑 여기 있잖아. 여기 둘이 서 있잖아. 여기.

면담자: 이건 아들인데?

지원자: 아니. 여기 옆에 가 아버님 아니세요? 여기가 어머니이고.

구술자: 아~ 여기가 우리 신랑이지. 가족사진. 우리 며느리 이빠. 며느리 키가 키가 1미터 72야. 야! 기숙이 설거지하나?

최기숙: 네. 다 했어요.

구술자: 사진 다 모아놔어. 사진 뭐 보려고 그래요?

면담자: 그 옛날 사진이 있으면 보려고요.

구술자: 옛날 사진이지 다.

면담자: [사진 속 인물을 가리키며] 누구세요?



구술자: 우리 아저씨.
면담자: 아저씨? 와! 키가 크시구나.
구술자: 커. 나는 작아도.
면담자: 이건 어머니이시죠?
구술자: 아니. 우리 시누님들. 한분 두분 세분.
면담자: 아! 그래요?
구술자: 우리 형님 팔순 때. 우리 큰 시누 팔순되어가 찍은 사진이야. 우리 신랑.
면담자: 신랑?
최기숙: 어! 고모부.
면담자: 아! 이분이야? 잘생기셨네. 이게 어디예요? 시골인가보다.
구술자: 이거 우리 아버지 환갑 때 찍은 사진이야.
최기숙: 지리실이겠네.
구술자: 우리 친정 아버지, 우리 친정 엄마 환갑 때 찍은 사진이야.
면담자: 혹시 이 사진은 뭐예요?
구술자: 이게 바로 우리 애들 학교 소풍가서.
면담자: 학교 어디 다니셨어요?
구술자: 학익국민학교.
면담자: 이건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최기숙: 중학교는 어디 나왔지? 오빠들?
구술자: 서인천중학교.
최기숙: [웃으며] 은혜.
면담자: 아! 딱 보면 아시네요. 와! 이런 사진! 소풍 가서 찍은 사진. 이거 누구세요?
구술자: 우리 조카 딸. 애 사촌 언니 영숙이.
최기숙: 아! 영숙이언니?
면담자: 혹시 이거 맥아더 장군 상이에요?
최기숙: 맞아. 자유공원에서 찍은 거.
지원자: 저희도 여기서 엄마,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있는데.
최기숙: 여기 이 할머니가 우리 고모 시어머니.
면담자: 어떻게 언니가 기억을 하세요?
최기숙: 할머니도 보고 했으니까. 고모네 집에 놀러 가면.
구술자: 90에 돌아가셨어.
면담자: 그러면은 어머니랑 남편분이신 거네요?
최기숙: 그리고 오빠들.



구술자: 우리 집에 20년 계셨어요. 그때 공원이 자유공원 밖에 더 갈데 있나? 놀러 가고 그랬어. 나도 추억이 따분한 사람이야. 엄청 땀뻘. 뭐. 이거 준영이.

최기숙: 어. 준영이 100일 때.

구술자: 사장(학익동 스시향) 어릴 때.

면담자: 네. 어디서 찍은거예요? 와! 다했어.

최기숙: 사진관에서 찍은 거지. 잠깐 고모! 그 동인천에 유명한 사진관 혹시 알아?

구술자: 동인천의 유명한 사진관?

면담자: 동명 사진관?

[구술자가 답이 없어서 약간의 침묵이 흐름]

면담자: 송도 중학교 졸업식인가요? 송도고등학교? 아! 여기 송도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이네.

구술자: 어. 그 때문에 한복 입고 아들 졸업하고 입학할 때 따라땀뻘.

면담자: 큰아들? 둘째 아들?

구술자: 둘째 아들.

면담자: 여기는 어디예요?

최기숙: 여기 고모네 집 앞인 것 같은데?

구술자: 이거 영준이래? 영각이래?

최기숙: 봐봐. 이걸 영준이 오빠.

구술자: 송도 고등학교죠?

면담자: 이걸 어디예요? 어머니?

구술자: 옛날 우리 살던 집

최기숙: 그 택시 옆에.

구술자: 아~ 맞아. 거기야.

면담자: 국민주택?

최기숙: 그럼 거기 택시 회사 옆에 살던 곳이 국민주택이었어?

구술자: 어~~

면담자: 이것도 그쪽 동네인 것 같은데?

구술자: 삼부자.

최기숙: 여기도 국민주택이야? 집 앞에?

구술자: 어. 거밖에(그것밖에) 더 찍었나? 애들 어릴 때는 그거지.

면담자: 네, 거기서 많이 찍죠.

최기숙: 여기는 용현 초등학교인가?

구술자: 학익 초등학교.



최기숙: 준영이가 있는? 여기 옆에?
면담자: 준영이는 놀러 갔나 보다.
최기숙: 준영이는 아버지 앞에 있고.
면담자: 아버지예요? 언니 아버지세요?
최기숙: 응.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옆에 고모부, 준영이, 이게 영각이 오빠인가?
구술자: 졸업할 때 준영이를 오빠가 데리고 왔어.
최기숙: 이 사람은 누구지?
구술자: 나지 나.
최기숙: 고모야? 근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구술자: 허리를 숙였지. 꽃다발 안고.
면담자: 근데 그때 치마를 안 입고 바지를 입으셨네요?
최기숙: 어머! 고모 양장입은 거 처음 봤어.
구술자: 젊을 때는 그때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야~.
최기숙: 몰랐네.
구술자: 시도 없이 따라다녔대. 입학 때 가고 졸업 때 가고.
면담자: 이런 다리는 뭐지?
구술자: 이건 우리 아저씨 회사 야유회 가가지고 한 겁니다.
면담자: 아저씨 회사?
최기숙: 카바이트 공장. 거기에서 야유회 간 거.
구술자: 응.
면담자: 이게 카바이트 공장 동료들이랑 야유회 간거예요?
구술자: 응. 잘 나왔어. 회사 사람들.
면담자: 나중에 이걸 다 기억할란가 모르겠네.
구술자: 그때 고생은 해도 이렇게 다 같은 직원들끼리 놀러 잘 다녔어.
최기숙: 여기도 집 앞이야.
면담자: 아!
구술자: 집 앞. 눈에 선해~
면담자: 사진을 그래도 제법 많이 찍으셨네요?
구술자: 아유~ 나도 추억을 많이 남겼어요.
최기숙: 고모는 아무래도.
면담자: [직원자님이 사진을 찍을 때] 이거는 졸업식.
구술자: 꼭 학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다 따라다녔다니까. 내가.
면담자: 이거는 시골집인가 보다. 이 사진 있으세요? 동생?



최기숙: 어. 있어. 집에 있어. 근데 이 사람 누구야?
구술자: 요거[사진에 있는 최기숙님 동생을 가리키며] 4살 먹고 어마이 죽었다니까.
최기숙: 어머 은영이 언니 같은데? 아닌가?
구술자: 나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최기숙: 느낌이 은영이 언니 같은데. 머리스타일이.
지원자: 바가지 머리.
구술자: 은영이 아니면 너지. 뭐. 입학 1학년때
최기숙: 음. 이거는 큰 오빠. 학익초등학교 입학할 때.
구술자: 이거는 우리 은혜. 손녀딸
면담자: 이게 학익초등학교 입학할 때예요?
구술자: 학익이야. 국민학교. 1학년때
최기숙: 가방 봐!
면담자: 세상에나.
구술자: 쪼그만했어.
최기숙: 옛날에는 왜 이렇게 이런 걸
구술자: 지금 61살 됐어. 61살. 애가 그때 부반장이었어. 학교 부반장인데, 이분이 애 1학년
선생님이야.
면담자: 아~
구술자: 학교 소풍 가 찍은 거야.
최기숙: 이거 고모, 중학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면담자: 애긴데? 초등학교 같은데?
최기숙: 아! 그래? 왜 그렇게 커 보이지?
구술자: 여도 봐. 초등학교 입학 때.
면담자: 정다운 이거. 이거 학익초등학교 올라가는 계단이네.
최기숙: 맞아. 맞아. 계단 올라가는 데. 그래, 아까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네. 옷에 그거.
면담자: 근데 이게[입학식때 찍은 사진에 꽃 목걸이²⁴⁾를 가리키며] 뭐예요?
구술자: 학교. 학교.
최기숙: 옛날에 언니 때 오빠 때 보면 항상 입학할 때.
구술자: 학교. 입학하면 주는 거. 1학년 입학할 때 찍고, 졸업할 때 찍고. 내가요 엄청 따라
댕겼어. 다 댕겼어.
지원자: 근데 사진 많이 찍어놓으셨다.
면담자: 진짜 사진이 엄청.

24) 사설 사진사가 찍어주는 사진으로 꽃 목걸이는 사진사가 빌려주는 것이었다고 함



최기숙: 이게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야.

구술자: 너네 엄마도 열심히 잘 땀겼다.

최기숙: 근데 사진이 없어.

면담자: 이건 동생인가보다?

구술자: 아들. 우리 아들

면담자: 그러니까 둘째.

최기숙: 영준이 오빠.

면담자: 왜냐하면 약간 크고 작아서.

구술자: 국민학교 입학할 때 찍고, 소풍 갈 때 찍고.

면담자: 이분은 누구세요?

최기숙: 고모부.

면담자: 어디예요? 여기가?

지원자: 와! 멋쟁이시네?

구술자: 회사 가서 놀러 가서 찍은 것 같아. 다리 있는데. 이건 제주도일걸?

면담자: 엄청 멋 부리고 찍으셨네요?

최기숙: 이 사진은 겁나 많네.

지원자: 그러니까요.

면담자: 이게 집이셨어요? 집 안?

구술자: 집안.

면담자: 여기 나가는 데가 화장실?

최기숙: 아니. 화장실은 안에 없었지.

구술자: 방 안에서 찍은 사진.

지원자: 열로 나가면 이제 거실?

구술자: 예.

최기숙: 마루.

구술자: 이거는 내 환갑 때 찍은 사진. 환갑 때 기생도 부르고 그랬어.

면담자: 어머니! 환갑 때 기생도 부르셨다니. 어떻게.

구술자: 기생 부르고, 빵빠레 부르고.

지원자: 여기는 학익동이에요?

구술자: 여기 다 학익동.

지원자: 93년도. 여기는 그럼 어느 집이에요?

구술자: 여기 그전에 주택. 장미꽃 앞에.

면담자: 근데 아까까지는 다 흑백이었는데. 아닌가?



구술자: 이거 은혜.

지원자: 아니에요. 담벼락도 칼라였어요.

면담자: 아. 아니구나. 칼라였구나.

구술자: 그때 은혜밖에 더 있었나?

최기숙: 은혜? 은혜가 90년생인가? 91년생인가?

구술자: 그때 은혜 하나 뿐이었어. 이것도 준영이야.

최기숙: 응. 준영이.

면담자: 아. 얼굴이 있네.

구술자: 이것도 은혜.

면담자: 그래. 여기 큰 언니다.

구술자: 큰 언니. 큰 딸

최기숙: 어. 여기 고모네 집 맞네.

구술자: 정말 사진도 얼마나 따복하게(잘) 찍었다고.

면담자: 이게 고모네 집 앞에? 기억나세요? 여기가?

최기숙: 나는 집은 기억나지. 길을 몰라서 그러지. 고모네 집 많이 가서 있었는데.

면담자: 놀러도 가시고?

구술자: 이 선생님 지금 많이 늙었겠다. 우리 영각이 1학년 선생님.

면담자: 이게 어디지? 송도고등학교?

구술자: 큰아들 둘째 아들 졸업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우리 아저씨 야유회 가서 찍은 사진.

면담자: 와! 큰언니. 딸은 내가 얼굴을 모르지만 큰 언니 얼굴을 알아서. 이거는 뭐예요?

구술자: 우리 아들 대학교. 대학교 때 같이 사진 찍은 거.

면담자: 어머니 되게 뿌듯하셨겠다. 여긴 어디지?

지원자: 여기가 카바이트 공장이에요?

면담자: 92년도는 아닐 것 같아요.

최기숙: 92년 4월 2일이라고 적혀있는데?

면담자: 카바이트 공장은 10년 밖에 안 하고 문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원자: 다 외국 사람들이예요.

구술자: 외국 사람 아니야.

최기숙: 다 외국인인데? 이게 옆에 가 가스 같은 게 있는데 도시가스. 그 옛날 공장.

구술자: 아이고. 이거 카바이트 다닐 때잖아. 이거 너 고마지(고모부)잖아.

최기숙: 고마(고모부)가 이렇게 까맣나?

구술자: 그래 복판에. 고마이(고모부) 바짝 말랐어. 그때.



면담자: 허리 27때인가 보다.

지원자: 가운데? 가운데 계신 분이 고모부?

구술자: 예.

최기숙: 왜 난 아무리 봐도 고모부 같지 않지?

지원자: 확대해서 함 봐 봐요.

최기숙: 함 봐야겠다.

지원자: 근데 외국인 같아 보여.

구술자: 옷도 봐요. 이렇게 입었지. 놀러 가 가지고 추억 남긴다고 다 찍은 사진.

최기숙: 아닌데. 고모부 아닌데. 다 외국분인데. 그냥 같은 회사분을 찍은 것 같아요. 고모부 아니야.

구술자: 아닐세. 진짜.

최기숙: 어. 아니야. 외국인이야. 그냥 다 외국인. 고모가 거 어디지?

구술자: 외국인이야?

최기숙: 어어. 거기 다닐 때 찍어줬나보다.

구술자: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

최기숙: 여기 가스통이 있는 거 보니까.

구술자: 맞아. 맞아.

지원자: 이건 시골집인가보다.

구술자: 아. 이건 조카 딸 시집 갈 때 가족 사진 찍은 거. 하하하. 우리 예린이. 손녀 딸.

지원자: 그래도 아버님 뭘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찍은 사진은 없으신가 보다.

면담자: 아까 야유회 가서 찍은 사진은 좀 있으신데.

최기숙: 그렇지 회사 내에서 찍는 사진은 별로 없고.

면담자: 하하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구술자: 우리 맏동생 환갑 때.

최기숙: 중학교 졸업할 때인가 보다.

구술자: 중학교 졸업할 때.

면담자: 귀엽다.

구술자: 아~ 진짜 열심히 땀뻘 땀.

면담자: 저기 앨범 또 한 개가 있던 것 같던데. 없네요.

지원자: 여기(사진 꾸러미)도 보면 야유회 가셨을 때 인 것 같아. 야유회. 이것도 야유회.

면담자: 그 마을 친구분들이랑 같이 놀러 갔던 사진은 없어요?

지원자: 학익동의 마을 친구분들.

구술자: 아! 많지. 이것도 놀러가 찍은 사진인데



면담자: 학익동 친구분들이세요?

구술자: 예. 학익동 친구들. 다 우리 친목계원들이야.

지원자: 어머니. 여기는 어디예요?

구술자: 이걸 제주도가 찍은 거.

지원자: 여긴 어디?

구술자: 아~ 이걸 시골 안동에 가 가지고. 3월달에 우리 손녀딸하고 조카 딸하고 가서 찍은 사진. 산골이야. 아주.

지원자: 이 사진은 기억나세요?

구술자: 이거는 저거야. 내가 장구 배울 때, 같은 일행들이 도봉산인가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지원자: 여기도 시골이에요?

구술자: 예. 시골. 시골이지 뭐.

지원자: 이거는 학익동 애기들 키울 때 그 방이에요?

구술자: 은혜하고 지현가?

최기숙: 은혜하고 하영이. 여기는 학익동 고모네 집이 아니라 큰 언니네 집인 것 같아.

면담자: 은혜 사진이 많네요.

최기숙: 고모가 은혜를 키웠으니까.

구술자: 내가 키웠지. 다.

최기숙: 내 동생 첫 훈련소 끝나고 면회가서.

지원자: 그것도 시골 사진이에요?

최기숙: 이렇게 있는 사진들은 대부분 그냥 최근에 찍은 사진들.

구술자: 사실 내가 죽으면 애들이 버리겠지만 하나도 안 버렸어.

면담자: 은혜 사진이 엄청 많네요.

구술자: 그애 참 사랑받았지. 그거 하나가 처음 생겨가지고. 잘 길렀지.

면담자: 아들들 사진인가 보다.

지원자: 이사진은 그럼 모임에서 가신 거예요?

구술자: 예. 모임에서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는 6번. 우리 친목계원들 부부 동반해서 가.

지원자: 그러면은 그 친목계원이라 하면은 당시 카바이트 공장 다니셨을 때 그분들?

구술자: 예. 거기 다니는 마누라랑 직원들.

지원자: 아! 카바이트 공장.

구술자: 이때가 좋았지.

면담자: 그때 좋으셨어요?

구술자: 이때는 이때 나름대로 이 시대가 좋은 때야.

면담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원자: 여기가 제주도 갈 때 가신 거예요?

구술자: 예. 제주도. 부부동반해서. 친목계라도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찍는 거 아냐. 다 해보면 모든 사람이랑 마음이 맞는게 아니야. 거기(창고방 안쪽에) 놔둬라. 내가 할게. 거기 없어놔.

면담자: 일단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